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2호 HYUNBULNEWS.COM 2025년 8월 13일(음력 윤6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진관사 태극기로 기리는 광복 80주년 서울시가 불교 항일유산인 '서울 진관사 태극기(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새긴다. 서울문화재단(대표 송형종)은 8월 9~17일 노들섬에서 개최하는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독립,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의 일환으로,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건물 외벽을 '진관사 태극기'로 장식했다. 행사 동안 '역사 속의 태극기展(노들 야외스퀘어)'과 '태극기 역사기록 사진展(노들라운지)'에서도 진관사 태극기를 만날 수 있다. 〈관련 기사 12면〉 글=여수령 기자, 사진=정현선 작가

불교계, '하나된 한국' 위해 평화 행보 나선다

조계종 · 민추본, 8월 14일 평화 법회
대화 촉구문 · 평화통일 발원문 낭독도
8월 15일 10시, 전국 사찰 33타 타종
진우 스님, 정동영에 "평화무드" 강조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광복 80주년.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 분단국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남북이 하나되는 '완전한 광복'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화합과 평화 분위기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종 공식 남북불교교류 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와 함께 8월 14일 오후 2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8·15 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는 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북 모두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에서는 연꽃으로 평화의 한반도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남북평화를 위한 대화재개 촉구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평화통일발원문 낭독, 뮤지컬 갈라팀 '어쏘트디'의 광복 기념 및 평화 기원 노래공연이 이어진다.

본부장 태효 스님은 "지난 2024년 3월 5일 조계사 마당에서 '불기 2568년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하며 남북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해마다 평화통일기원법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면서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8·15를 즈음해 개최하며 갈등과 적대를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7000만 겨레에 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민추본은 법회와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한국 독립운동과 불교'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포럼 '일제 강점과 분단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통일로!'를 진행한다. 특별기획전은 8월 7~17일 서울 봉은사 연희다원(전통찻집) 앞 야외에서 전시된다.

특별포럼은 8월 11일 오후 3시 서울 동국대 학명세미나실(문화관 2층)에서 진행되며 1부는 '불교 독립운동의 연구, 성격-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가 특강한다. 2부는 김성연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 김진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앞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7일 '불기 2569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법회 계획을 확정했다. 기념법회는 8월 15일 오전 10시, 회원종단 소속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거행되며 33타의 타종으로 시작된다. 이는 일제강점기 국난극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생과 국민 화합을 구현하자는 취지다.

사찰 상황에 따라 순국선열에 대한 헌향, 추모묵념, 광복절 의미와 평화통일 염원 법문, 불교계 공동선언문 낭독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에는 "광복 80년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화합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고자 쉼없이 정진하겠다"는 불교계의 다짐이 담겼다.

종단 차원의 평화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 6월 16일 이규민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을 대북 종책 특보로 임명하면서 남북 교류 복원에 대비한 조직 정비를 서둘렀다.

8월 4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홍보관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남북관계 복원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정 장관의 임명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 같다"며 "국제 정세도 점차 평화 무드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가 든다"고 말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최근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북한에서 원산 갈마지구와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불교계가 앞장서서 관광도 하고, 내년쯤 신계사에서 공동법회를 열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신계사 복원 불사를 지원한 인연을 소개하고 "청문회 때 원효 대사 말씀을 인용해 '남북관계는 불일불이(不一不二)', 곧 남북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며 "불일불이 사상이야말로 앞으로 평화통일 과정의 가장 큰 정신적 원천이라 생각한다.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불교계가 큰 역할을 해주면 고마울 것"이라고 요청했다.

성파 대종사 해제 법어
"폭우 이재민에 따뜻한 손 되길"

전국 선원 8일 하안거 해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8월 8일(윤 6월 15일) 을사년 하안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려 폭우 피해 이웃을 위한 자비심을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수행을 마친 안거 대중에게 "안거(安居)가 원만했고 자자(自恣)가 원만했으며 인연 있는 이들에게 전해줄 법식(法食)이 넉넉하니 금년 하안거는 제천이 환희하고 부처님께서 칭찬할 만하도다"며 "이 모두가 제방에서 수행하는 여러 선승과 수행을 돕는 여러 소임자와 신심 있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불사이니 참으로 찬탄하노라"고 격려했다.

이어 "폭우로 신음하는 여러 이웃에게 따뜻한 손이 되고,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풀어줄 넓은 가슴이 있는가"라고 수행을 점검하며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되리라"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의 면면이 중생들에게 법(의심의 여지 없는 진리)이 되길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을사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2개 선원(총림선원 6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27곳)에서 총 1790명(총림선원 222명, 비구선원 1046명, 비구니선원 522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총림 방장 법어 5면〉

김내영 기자

산불 피해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추진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8월 4일 프로젝트 공개
"산림 정책 전환 계기"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 사찰림 바닥에서 맹아와 참나무류가 새싹을 틔우고 있다. 사진 제공=불교환경연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각과 사찰림 약 98%를 잃은 의성 고운사가 사찰림의 자연복원을 결정했다. 광범위한 사찰림의 자연복원은 첫 사례로,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운사는 8월 4일 경내에서 불교환경연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등과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자연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현지 생태계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회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운사의 결정은 사찰림 자연복원을 공식 선언한 최초 사례로 나무줄기까지 피해인 수관화를 입은 광범위한 산림 지역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본격적 복원이다.

이번 조사의 중간보고서는 오는 9월 중, 최종 보고서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연대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새로운 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2026년 초부터는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과 자연복원 유도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과거의 모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숲을 재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나무 숲의 옛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자연이 선택하는 새로운 숲의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자연복원의 의미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3면에 계속

AI 2025 현대불교신문 그림 공모전

2025. 08. 04 ~ 08. 29

공모주제 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자유롭게 상상하여 AI로 그려주세요

공모기간 2025년 8월 4일 ~ 8월 29일

참가자격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이메일(hbnewmedia@naver.com)

참가방법 1인 1작품 + 공모전 지원서(홈페이지 참조)

제출형식 파일형식 : jpeg, jpg, png
해 상 도 : 300dpi, 6000px 이상 / 가로형식(3:2)

수상발표 2025년 9월 15일 / 현대불교신문 사이트 게재

시상내역

대 상	1명	50만원	최우수상	2명	30만원
우수상	3명	20만원	장 려 상	10명	10만원

수상작의 저작권은 현대불교신문에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2026 캘린더 제작에 사용 예정

문의 02-2004-8252 현대불교신문 https://www.hyunbulnews.com/

“총무원장 직선제는 종단 변화의 시작”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 좌담회

8월 5일,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서
직선제 필요성·실행 방안 등 공유
“투명 선거로 종도 참여 확대해야”
종단 내 지속적 공감대 형성 방침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내년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8월 5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조계종 승가공동체 회복의 첫걸음,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약 30년간 총무원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유지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짚고 직선제의 필요성과 제도화 절차, 실질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열린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좌담회는 전 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전 스님이 사회를 맡았으며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상적선원 선원장 해관 스님, 법장사 회주 퇴휴 스님, 마음정원 대표 선엽 스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정성운 신대승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해 총 5개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한 240명 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방식이다. 그러나 추진본부는 이 같은 간선제 구조가 파벌정치와 폐쇄성 등 구조적 병폐를 키워 왔다며 직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6년 중앙종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스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직선제 찬성 비율이 80.5%에 달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는 그간 종단 안팎에서 몇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추진본부는 직선제 시행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과 운영상 어려움도 분명 존재하지만 보다 많은 종도 참여를 이끌어 내고, 승가 본연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퇴휴 스님은 “그간 간선제로 운영되면서 매관매직과 야합, 담합 등의 병폐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종헌종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중에 있든 중앙에 있든, 승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는 8월 5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조계종 승가공동체 회복의 첫걸음,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본부는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자격을 비구는 중덕 이상, 비구니는 정덕 이상으로 설정했다. 중덕·정덕 법계는 종법상 상좌를 둘 수 있고, 말사 주지 자격 및 교구 산중총회 구성 자격이 주어지는 등 종단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책임성을 부여받은 품계다. 추진본부는 “경륜과 덕망, 수행력을 고루 갖춘 이들이 종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선거관리도 직선제 실현의 핵심 요소다. 추진본부는 시대적 환경과 기술 반전을 고려해 현실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감시체계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투명한 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종단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퇴휴 스님은 “직선제가 그나마 대중의 공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만일 지금의 선거제도가 대중의 뜻과 다르게 간다면 다시 대중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공할 수 없다. 지난하더라도 종도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고 했고, 해관 스님은 “2025년엔 새로운 종단 개혁이 필요하다. 종단 내 대덕 스님들을 직접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선엽 스님은 “강원 과정을 마친 스님이 종헌·종법 교육을 받지 않는 현실은 직선제 논의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종도 스스로 계몽하고 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병기 교수는 “종단 전체가 긍정적인 선거제도 전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정성운 대표는 “관행을 내려놓고 공개적인 제안을 이어가야 한다. 중앙종회의원, 원로회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전 스님도 “이미 화엄사·선운사·월정사 등에서는 선거 잡음 없이 교구 재적승을 위한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 현실 가능한 모델은 존재한다”며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겠지만 우리 사회도 수십 년에 걸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종단도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누군가가 같은 목소리를 이어간다면 머지않아 변화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희망을 전했다.

조계종 종책모임 정법회 출범…“공익 위한 종회 만들 것”

8월 4일, 기자간담회 개최
14명 동참…회장 탄원 스님
“총무원장 스님도 격려 전해”

“사부대중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중앙종회, 종헌종법에 기초한 공정한 중회 운영, 특정 계파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종단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중앙종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법회 발족선언문 중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에 새 종책모임 ‘정법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법회는 8월 4일 서울 조계사 베이커리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출범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사진〉

정법회는 중앙종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종회의원들이, 현실을 개선하고 협의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결성한 종책연구모임이다. 회장은 탄원 스님, 종책위원장은 대진 스님, 간사는 설도 스님이 맡았으며 종봉·종원·원각·도림·향문·원경·혜산·연규·원각·우경·오심·천산 스님 등 총 14명의 중앙종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14명 중 하안거 결제 중인 오심 스님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천산 스님을 제외하고 12명이 참석했다.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은 ‘사부대중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제하의 발족선언문을 통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단 입법기구이자 대의기구로 종단 미래를 설계하고 종도들의 뜻을 대변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중앙종회가 바로 설 때 종단이 바로 서고, 종단이 바로 설 때 한국불교의 미래 또한 건강하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종도들의 뜻을 받들고 종헌종법이라는 원칙 위에 서겠다”며 “우리는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종단 운영을 통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법회는 출범에 앞서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각각 예방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진우 스님과의 만남에 대해 종책위원장 대진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조계종이 가진 다양성을 건전하게 품어내고, 중앙종회가 소통을 통해 발전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정법회는 종봉·종원·원각 스님을 종책연구위원으로 선임해 앞으로 종책 연구를 심도 있게 이끌 방침이다. 정법회는 “앞으로 폭넓은 종책 질의와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의원스님들과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위덕대 제10대 총장 보성 정사 선임

회당학원 7월 29일 이사회서
총장 임기 9월1일부터 4년간



진각종립 위덕대 제10대 총장으로 위덕대 전법원장 보성 정사〈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상명 정사)은 “7월 29일 대구 심인고 회의실에서 제526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성 정사를 위덕대 제10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보성 정사는 1985년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5월 미국 더 웨스트 대학(University of the West)에서 ‘근대한국불교 개혁운동-회당의 종교사상과 진각종의 종파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대한불교진각종과 회당의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진각종의 창종정신과 인간중심 실천불교운동, 미국 불교현황을 통한 진각밀교의 미래방향성 고찰’, ‘동아시아 밀교의식연구’, ‘불교적 교육과 인간의 심성계발’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불교와 사회〉, 〈회당평전〉, 〈진각밀교 교리와 신행연구 下〉 등이 있다.

신중일 기자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불탄 고운사 사찰림, 자연이 복구한다

▶1면에서 이어짐

‘자연복원’ 전망과 기대

사찰림 자연복원 최초 사례 ‘눈길’
그린피스 · 환경연합 등 전문가팀
“현장 이미 새싹…야생동물 서식”
자연생태 변화 추적 조사 박차



의성 고운사는 8월 4일 경내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자연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현지 생태계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그린피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3월 의성에서 시작된 역대 초대형 산불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를 집어삼키면서 전각을 포함한 사찰림 전체 면적 248.87ha 중 약 97.61%인 242.92ha를 잃었다. 축구장 340개 크기로 이는 산불 피해를 입은 국내 사찰림 중 가장 큰 규모다. 고운사 사찰림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안타까움을 더한 가운데,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산불 피해지를 기존 방식인 인공복원이 아닌 자연복원을 결정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고운사의 결정은 사찰림 자연복원을 공식 선언한 최초 사례로, 나무줄기까지 태운 수관화를 입은 광범위한 산림 지역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본격적 복원이다. 현지 생태계 조사는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연구팀이 맡았다. 이규송 연구팀은 산불 피해 강도 분석, 현존식생도 작성, 토양 침식 평가 등 식생 회복탄력성 평가를, 한상훈 연구팀은 카메라 트랩과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중대형 포유류 및 박쥐류 조사 등 야생동물 서식지 조사를 담당한다.

8월 4일 열린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규송 교수는 “산불피해지역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식생의 회복탄력성 평가와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토양안정성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상훈 박사는 야생동물 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반달가슴곰, 노루, 멧돼지 같은 대형 포유류부터 흰넓적다리붉은쥐 등 소형 포유류와 어치 등 조류가 도토리 같은 식물 종자를 널리 퍼뜨리는 숲의 관리자”라며 “야생 동물은 숲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 참가자들은 이번 자연복원 프로젝트가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태형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인공복원으로는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회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더 효과적임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그간 산림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식재하는 방식의 인공복원을 반복해왔다. 인공복원 과정에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심는다는 점과, 기준 숲을 베어 내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지시하며 산림산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 참가자들은 고운사 사찰림을 둘러보며 사찰림이 산불 피해 이후 약 4개월간 이미 자연복원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침엽수는 대부분 소실됐지만 활엽수 대부분은 생존해 빠르게 새싹을 틔웠으며 다양한 야생 조류도 숲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 실제 현장 조사에서 너구리와 박쥐, 등줄뒤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은 “이미 현장에서는 자연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꾸준히 추적 관찰,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 고운사가 협력해 추진하는 첫 자연복원 프로젝트가 산불 피해를 입은 다른 사찰림 복구 계획에도 참고할만한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동방학원 인수합병 ‘첫발’

이사회서 인수 대표자 선임
내년 3월 경 최종 인수 계획
의료원 기채승인 등 안건 처리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가 의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학원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8월 5일 교내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62회 이사회를 열고 동방학원 인수합병 추진 대표자로 이사장 돈관 스님을 선임했다.

1946년 4월 의성고등공민학교로 출발한 학교법인 동방학원은 1979년 3월 의성고등학교를 개교했으며, 현재 9개 학급 18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명덕 현 동방학원 이사장이 조계종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왔고, 종단의 현장 조사 결과 학교법인 동국대에서 인수합병할 것을 제안했으며, 학교법인 동방학원 측도 이를 수용해 인수절차가 진행됐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8월 중 의성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 및 인수합병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9~10월 중 산하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빠르면 11월에는 학교법인 동국대와 학교법인 동방학원의 인수합병 협약식이 진행되며, 교육부 합병 인가를 거쳐 내년 3~4월 경에는 최종 합병 인가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역 명문학교를 인수합병할 수 있게 된 것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인수 절차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삼조 스님의 후임으로 이사에 선출된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법인 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료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안건들도 잇달아 가결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융자 사업’을 통해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경주병원이 배정받은 85억4700만원의 융자금을 기채 승인하는 ‘의료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기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중증·응급 필수 진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장비 구입과 응급의학과 의료진, 입원전담의 등 핵심 인력 충원을 진행하며, 경주병원은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구축, 응급의학과 전문의 운용에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법인산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 채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025회계연도 법인산하학교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5회계연도 경주병원 시설대여(리스)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매각)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원안 가결하고 폐회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사 진화 스님(증심사 회주)과 성화 스님(장안사 주지)은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각각 쾌척했다. 신중일 기자

도선사 새 주지에 호법부장 도심 스님

진우 스님, 8월 7일 임명장
기념관 복구기금 500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7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직할교구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임기는 9월 30일부터 4년이다.

진우 스님은 “도선사는 강북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청담 대종사의 마음과 뜻이 담긴 도량”이라며 “앞으로도 (청담 대종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청담 문도가 화합하고 사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도심 스님은 “청담 대종사의 정신을 이어 어른스님들 잘 모시고 문도 화합을 이끌겠다”며 “선명상을 통한 전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도심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도심 스님은 성혜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사미계)했다.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기획국장, 호계원 사무처장, 사회부장 및 중앙종회의원 16·17·18대를 역임했다. 현재 호법부장 소임을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관음종,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조사 후원

총무부장 홍경 스님 등 방일
새기는회에 모연기금 전달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잠수 조사를 후원했다.

관음종은 “8월 6~8일 진행되는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잠수조사 참관을 위해 총무부장 홍경 스님과 신강호 주무관이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잠수조사는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 이하 새기는회)이 주관했다.

이번 잠수조사는 제3차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금 1300만엔이 모여 진행하게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 7월 29일 MBC PD수첩을 통해 조세이 탄광의 실상이 소개되면서 방송 이후 235만원의 후원금이 답지했으며, 이는 현장에 전달됐다.

한편,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 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조선에서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83명의 유해 발굴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방송 · 언론보도 등 분야
9월 3일까지 접수 가능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불교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을 공모한다.

공모자격은 2024년 8월 30일~2025년 9월 2일까지 발표된 불교적 관점을 담은 모든 콘텐츠다. 공모부문은 △방송(TV·라디오) △언론보도(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기획 및 보도기사) △뉴미디어(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팝캐스트, 웹툰 등) △특별부분(영화, 뮤지컬, 광고, 미디어교육 등) △언론인이다. 접수는 방문과 우편, 이메일(jokbmedia@wehago.com)로 가능하며 9월 3일까지다.

시상식은 11월 12일 열린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02-2011-1681

임은호 기자

미룡당 월탄대종사 선양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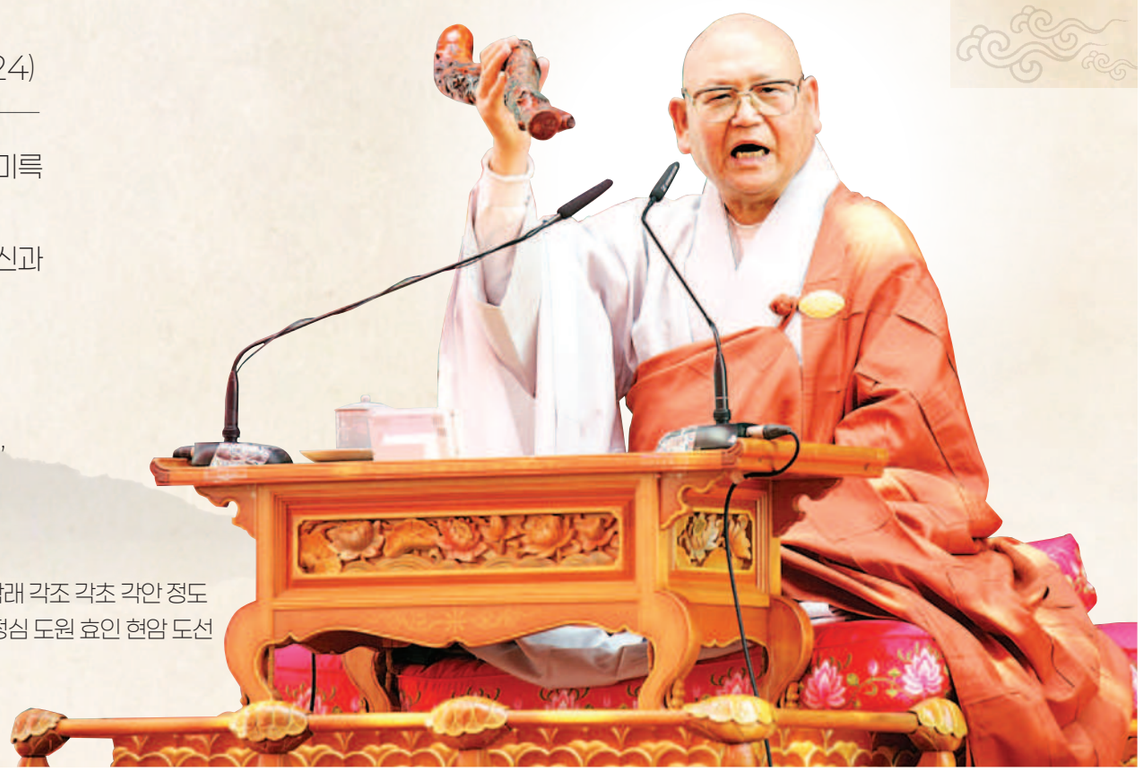
일시 | 2569(2025). **8. 21**.(목) 오후 1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교정화운동의 선봉에 서시고, 법주사·용화사·대흥사를 미륵도량으로 장엄하신 미룡당 월탄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원적에 드시는 순간까지 제방선원을 순력하며 수행정진하신 대종사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 금오미룡문도회,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관 | 불교신문, 한국불교학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동국대 석림동문회, 중앙신도회, 국회정각회, 대한불교진흥원,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 문도명단 |

상 좌 성운 각현 일공 혜강 성찬 각명 각륜 각철 각운 각원 각만 각능 각립 각문 각주 각우 각범 각광 각연 각승 각혜 각의 각밀 각래 각조 각초 각안 정도
손 상 좌 동출 원명 원상 덕산 법흥 원해 원경 덕현 효광 원범 원철 원오 효정 효원 동광 동관 지관 효당 법원 효담 법오 덕현 법안 정심 도원 효인 현암 도선 범종 무진 동원 정수 법종 묘광 혜욱 지안 여현 효운
재가제자 주호영(국회부의장) 대덕 효경 약산 경욱 신광 덕봉 영순 각진

출가의 인을 심다

〈因〉

4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회향
7월 27일~8월 2일까지 18명 참여
"참나 찾는 수행, 일상 이어지길"
내년 1월 29일 5기 출가학교 입재

수원=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제4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가 8월 2일 7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향했다. 사진은 행자들이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출가의 인연을 맺기 위해 봉녕사를 찾은 여성 불자 18명이 7박8일 간의 일정을 무사히 회향했다. 행자들은 출가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신실한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8월 2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4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졸업식을 봉행했다. 지난 7월 27일 입교한 18명의 행자는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도반'으로서 서로 도우며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치고 회향식에 참석했다.

행자들은 그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과 경전 독송,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소리선명상과 요가 등 수행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또 삼귀의계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며 불자로서의 삶을 다짐했다.

석좌교수 도혜 스님은 "앞으로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지혜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길 바란다. 수행은 내면을 세우는 지혜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율주 적연 스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불제자로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운 삶을 체험했길 바란다"며 "앞으로 봉녕사 출가학교 행자로서 몸과 말과 마음을 잘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자리이타(自利利他)행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어 출가학교장 진상 스님이 행자들에게 일일이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행자들에게는 졸업증서와 함께 〈연꽃 향기로 오신 묘엄 스님〉(1, 2권)과 봉녕사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가 선물로 주어졌다.

진상 스님은 회향사에서 "수행은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반조자성(反照自性)이다. 마음을 반대로 돌려 내면의 세계, 자신의 성품을 비추어 보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한 가지라도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행동을 실천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3기 졸업생인 선혜화 행자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걸음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행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출가학교에서의 수행을 통해 굳건해진 신심과 원력으로 그릇됨을 멈추고 선법 닦기를 발원하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며 선심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느 곳에서라도 두려움 없는 청정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조그마한 공덕도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졸업증서를 받으며 눈물을 보인 월광화 행자는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도반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출가학교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불교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보덕행(20) 행자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생활하다 보니 너무 만족스러웠다. 특히 사시예불 기도에 온 힘을 다했다. 집에 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라고 소감을 밝혔다.

입재식 때 삭발을 했던 월인지(23) 행자는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이다. 스님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봉녕사는 내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제5기 여성출가학교를 운영한다. 공동생활이 가능한 17~60세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31-256-4127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난민에 자비 손길을"

로터스월드, 난민 지원 캠페인
8월 3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서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으로 발생한 시엠립 지역 난민들의 생활 모습. 사진 제공=로터스월드

아시아 불교국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8월 31일까지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으로 발생한 시엠립 지역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난민들은 지난 7월 24일 발생한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을 피해 다르메안체이주(Oddar Meanchey Province)와 프레아비헤아르주(Preah Vihear Province)에서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가 위치한 시엠립 지역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와 태국은 잠정적인 휴전에 들어간 상태지만 국경 인근 주민들은 이미 폐허가 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가 해당 난민들의 생활 현장을 찾아 실상을 조사한 결과, 피난민들은 천막으로 된 임시피난처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식료품, 식수 등도 부족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시엠립 지역 현지 사찰들이 임시 피난처를 조성해 제공하고 있지만 각종 생필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7월 29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1차 긴급구호를 진행, 생수와 쌀, 라면 등을 지원했다. 이어 모연 캠페인을 통해 시엠립 지역 난민들에게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모연금은 난민들에게 시급한 쌀과 식료품, 식수, 위생용품 키트, 모기장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캠페인 참여는 네이버 해피빈(캄보디아 국경 분쟁, 시엠립 난민에게 희망을)을 통해 가능하며 로터스월드 후원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024-071023-01-031
예금주 : 로터스월드(02-725-4277)

임은호 기자

더프라미스, 산불·수해 지역 지원 '구슬땀'

청송 산불 임시시설에 실용물품
폭우 산청 구조 인력 맞춤 지원



더프라미스는 7월 22~26일 5일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산청에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사진 제공=더프라미스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에 이어 7월부터 시작된 폭우로 이재민이 속출한 가운데 불교계 대표 국제구호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이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긴급구호를 이어가고 있다.

더프라미스는 6월 27일~7월 21일 약 4주간 3월 산불 이후 임시거주시설에 있는 청송군 이재민 총 480세대에 맞춤형 입주키트를 포함한 실용물품을 지원했다. 물품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이재민들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으로 세심하게 구성됐다. 맞춤형 입주키트 220개, 그릇세트 260개, 무더위 대비 선풍기 30대, 쌀 80포대 등이다.

한 이재민은 "산불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맨몸이었는데, 걱정을 덜어줘 감사하다"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7월 19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 활동도 나섰다.

더프라미스는 7월 22~26일 5일간 산청에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미처 손길이 닿지 않던 '틈새'를 찾아 이재민과 수색 및 구조 인력을 지원하는데 힘썼다. 수색 구조 인력을 위해서는 시원한 간식과 아이스 넥 스카프를 전달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구에 힘쓰는 이재민 200명에게는 의류와 식료품을 제공했다. 또 부식 400개도 전달하며 위로를 전했다.

임은호 기자

올 가을 피어나는 인연 '나는 절로 신흥사'

8월 14일 오전 10시까지 신청
청춘 남녀 10명 총 20명 선정

전 국민적인 관심과 뜨거운 호응,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나는 절로'가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신흥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강원관광재단과의 협업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9월 13~14일 1박 2일간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신흥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강원 여행'을 테마로 설악의 품에서 피어나는 인연을 맺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흥사는 설악산 자락과 동해 바다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사찰로 특히 설악 울산바위의 기운을 품은 도량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흥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중심으로 남녀 각 10명, 총 20명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구성된 다양한 활동이 마련된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영랑호 산책 데이트, 속초 바다를 배경 1:1 로테이션 차담, 관광수산시장 탐방 데이트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감성 프로그램도 준비, 지역과 청년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설악의 품속과 시원한 동해 바다를 품은 신흥사는 몸과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수행처이자 청년들이 진정성 있는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이번 '나는 절로'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역시 "설악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는 절로, 신흥사'는 종교에 상관없이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2030 미혼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8월 5일부터 8월 14일 오전 10시까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 공지사항 구글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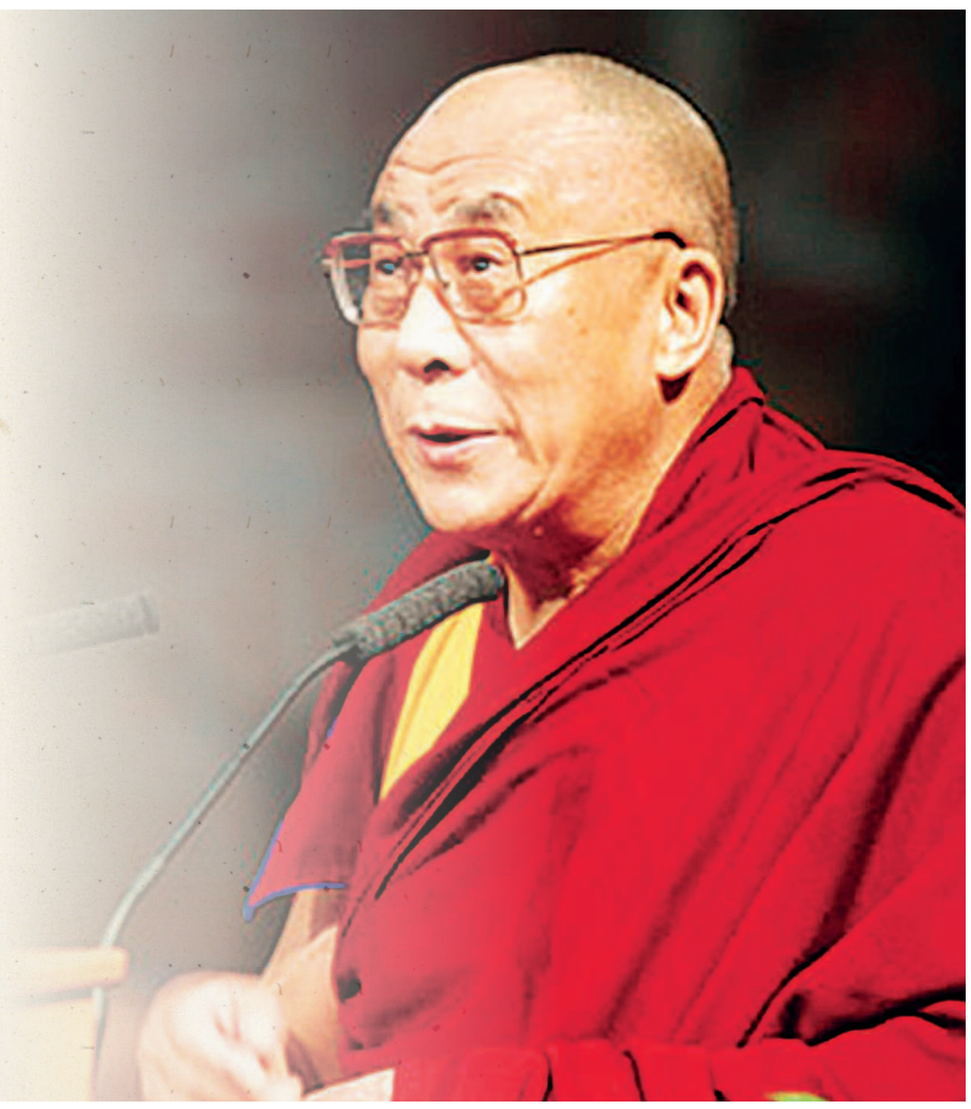
달라이라마 성하 구순 기념행사 및 친견법회

2025년 9월 20일 다람살라 동참자 모집 중

삼학설행사(랍숨섀둡링)는 다가오는 9월 20일, 다람살라에서 동남아시아 10개국과 공동으로 '달라이 라마 존자님 구순 기념 행사'를 주최합니다.

삼학설행사는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할 사부대중을 모집합니다. 동참 일정은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7박 8일간이며 기념행사 참석, 존자님 친견 등 그 밖의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동 참 일 정 : 9월 18일~9월 25일 (출·귀국일 포함 7박 8일)
- 동 참 금 : 260만원
- 접 수 마 감 : 8월 25일(선착순 마감)
- 문의 및 접수 : 010-3264-4221 / 010-3033-0751 (문자 수신 가능)



돌솥 차 향기 천하에 퍼지리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讚不及毁不及(찬불급훼불급)
若了一萬事畢(약요일만사필)
無欠無餘若太虛(무흠무여약태허)
爲君題作波羅密(위군제작바라밀)

찬탄도 미치지 못하고 훼방도 미치지 못함이라
만약 하나를 요달하면 만사를 마치도다
모자람도 남음도 없어 태허와 같거늘
그대를 위해 바라밀이라 이름하노라

삼하 안거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제방의 수선납자여!

안거(安居)가 원만했고 자자(自恣)가 원만했으며 인연 있는 이들에게 전해줄 법식(法食)이 넉넉하니 금년 하안거는 제천이 환희하고 부처님께서 칭찬할 만하도다.

이러한 최상승의 간화선 수행 방법이 조계종 승가에서 전승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도다. 이 수행법은 곧바로 여래지에 이르는 수승한 방법이니 모두가 활용해야 하리라. 이 모두가 제방에서 수행하는 여러 선승들과 수행을 돕는 여러 소임자들과 신심 있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불사이니 참으로 찬탄하노라.

이제 삼하결제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짊어진 걸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폭우로 신음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이 되고,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풀어줄 넓은 가슴이 있는가?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되리라.

누군가가 영축산의 소식을 물으면 어찌 답하시려는가?

올여름 무더위에 구룡지 옆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어나고 돌솥에 차 향기는 더욱 진하다네.

採藥忽迷路(채약홀미로)
千峰雲霧裏(천봉운무이)
山僧汲水歸(산승급수귀)
林末茶烟起(임말다연기)

약을 캐다 길을 잃었는데
천 봉우리는 운무 속이네
산승이 물 길어 돌아가더니
숲 끝에 차 달이는 연기 일어나네

어떤 것이 본래종인가?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陞座 拄杖三下云 會麽
即下契合大悟出 萬仞峰頭獨足立
石女舞成長壽曲 木人唱起太平歌
今日 解制大衆은 還知麼?
若不知인댄 且道하리라.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아 있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 보이고 아시겠습니까?

직하에 계합하여 크게 깨달아 뛰어나면
만길이나 되는 봉우리 위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다.
돌여자는 춤을 추며 영원히 사는 곡조를 이루고
목인은 일어나서 태평가를 부르네.
금일 대중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했을진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사의한 도는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妙智는 가히 유심으로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며
진실한 도리는 가히 我相의 존재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극한 이치는 가히 사를 헤아려서 되는 것도 아니라. 만약 대중이 알아 얻어간다면 가섭존자의 떨어진 가사옷이 값이 百千萬량이지만
만약 알아 얻지 못한다면 윤왕의 상투 가운데 보배는 반푼어치도 못된다.
如何是本來宗? (어떤 것이 본래종인가?)
答曰 密室不通風 (밀실은 바람도 통하지 못합니다.)
問 智識不到處 如何?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어떠한가?)
答曰 三門不曾開 (삼문을 일찍이 열지 아니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날 이 산승이 75년도 동안거를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향곡조실스님을 모시고 입승소임을 맡고 한철 정진을 했는데, 해제하는 날 향곡조실스님께서 월내 관음사 가서 같이 살자고 하시면서 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차에 타라고 하셔서, 월내 관음사로 조실스님을 모시고 가서 76년도 하안거 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전국신도회장 이후락 박대통령 비서실장과 경남도지사와 일행 30명이 향곡조실스님 친견차 관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가 안내했습니다.

조실채로 가보니 향곡조실스님이 방에 안 계시고 장삼을 수하시고 법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이후락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 비서실장 일행은 조실큰스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향곡조실스님과 이후락 비서실장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이후락 비서실장이 향곡조실스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니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시오." 하셨습니다. 이후락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향곡'이라 해서 향곡에 와봤더니 향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 했습니다.

향곡스님 대답하시길 "대천세계가 다 향내거늘 향내를 따로 찾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후락 비서실장이 말하기를 "결국 그렇게 됐군요." 하니 향곡스님께서 "선방으로 들어갑시다." 하셔서, 선방에 들어가서 대중과 함께 차담을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비서실장이 관음사 올 때는 큰스님 뵙고 불사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철길 위로 다리를 놓아 주고 큰 선방 불사도 해주기로 했는데 돌아간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후락 비서실장이 큰 감동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는 걸로 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풀 뽑는 울력을 했는데 제가 향곡조실스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실큰스님께서 이후락 비서실장을 크게 한 방망이 내렸더라면 이후락 실장이 또 찾아뵙고 불사를 크게 했을텐데, 방망이가 너무 약해서 감동을 받지 못해서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향곡조실스님 말씀이 "입승 대원스님 같으면 향내가 안 난다고 할 때 이후락 비서실장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겠는가?" 하시고 물으시길래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한로축개(한로축괴)는 원래 냄새를 잘 맡고 다니지." 라고 하겠습니다.

향곡조실스님께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중략〉

공부정진하는 납자는 항상 선지식 가까이서 공부점검 경책을 자주 받고 정진해야 빨리 본분사 일을 해 마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외도 아니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깨달아서 반드시 선지식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해 증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하루속히 눈 밝은 납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가해서 이 일을 해마치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서 무용지물로 삼보의 빚만 지고 있으니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시급함을 느끼면 지극한 화두 참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然이나 難明向上一窺
(위로 향하는 한 구멍을 밝히기 어렵다)
卓拄杖云(주장자를 높이 세우고 이르데)
一曲少林無孔笛 從來多是逆風吹
한 곡조 소림의 구멍 없는 피리를
종래로 많은 이가 역으로 부는도다.

喝

拄杖三下下座하시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8월 8일 을사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는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 스님을 비롯한 총림 방장 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지면 사정상 전문은 QR코드를 이용해 현대불교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지금은 주인공의 시대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若人慾了知 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부처님을 알고 싶은가? 이 물건을 알고 싶은가?
법계성을 응관하라. 세상을 느껴봐라.
일체가 유심이다. 일체가 이놈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이놈이네!
아, 태초여! 아무것도 묻어있는 것이 없네.
언제나 새출발, 그때그때 반응, 방실방실 반응

본다, 듣는다, 이놈이네.
바다, 파도 소리, 반야
백천만 가지가지 반야의 반(般)
보고 듣는 이 주인공 반야의 야(若)
반야, 반야심경은 이뭘까? 부처님 화두 법문

세상을 안고 있는 허공, 허공을 삼킨 이 물건
꽉 찬 허공, 생명의 숨길 바다, 숨 쉬는 숨통
낱낱이 자기 향기, 자기 색깔, 자기 기세
풀, 나무, 바위, 흙, 나는 새, 기는 짐승, 벌레, 물고기
모두 모두가 서로서로요, 원융무애(圓融無礙)로다.
높낮이 녹아진 지심(至心)바다
두두(頭頭)가 알 수 없는 이뭘까? 생명의 화두 이뭘까?
이놈, 이 한 생각, 전체 한 덩어리 이뭘까?
이뭘까?는 생명바람, 목숨바람
알 수 없는 이뭘까? 화두, 화두는 내 심장
주는 마음, 대중 시봉, 보시, 심장을 후끈하게 합니다.

소통, 상생, 합세의 위력, 어울리는 여유
벌떡 일어나 솔선하십시오. 심장이 탄력을 받습니다.
보살행은 눈이 크게 떠집니다. 숨이 크게 쉬어집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보살행, 결코 작은데 묻히지 마십시오.
대자대비 사랑의 관세음보살
보살행은 심장이 터지는 불공이요, 소원 성취가 되는 기도입니다. 〈중략〉

금청일계성 장부능사필
(今聽一鷄聲 丈夫能事畢)
홀득자가보 두두지차이
(忽得自家寶 頭頭只此爾)

닭 우는 소리에
장부능사 이 일 뿐임을 알았네.
홀연히 자가보를 얻고 보니
이놈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머리머리 이놈이네.
나무아미타불

법어 전문 바로가기

오직 마음 깨달아야 출격장부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絶學無爲閑道人 절학무위한도인
不除妄想不求眞 부재망상불구진
無明實性卽佛性 무명실성즉불성
幻化空身卽法性 환화공신즉법성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환과 같은 텅 빈 허깨비 같은 빈 몸이 법성이니라.

자신의 진여 자성을 깨달아 알았다면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이다. 애써서 망상과 잡념을 없앨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진성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어, 묵, 동, 정, 어느 것 하나도 도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참 성품은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서 어두컴컴하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흩어 버리면 그대로 파란 하늘입니다.

역대 선지식이 오직 마음을 깨달아야 출격장부가 된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항상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서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당부하십니다.

여름 안거 한 철 용맹정진해서 마음을 확철하게 깨달아서 참다운 자유인이 되신 출격 장부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본성을 깨닫지 못해서 미망 속에 헤매는 수좌도 있을 것입니다.

산승이 주먹을 들어 올리면,
대중은 이 주먹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주인공이 있어야지 분명하게 주먹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은 사물을 비추고 마음이 있어서 주먹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또렷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처가 누굽니까!

알았다고 하는 그 자리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부터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에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제되었다고 공부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공부 길에는 결재 해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깨달아서 대장부가 되어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미생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앉으나 서나 일용생활 속에 화두를 드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가고 오고 앉고 서고 간절하게 화두일여 속에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見聞覺知無障碍 견문각지무장애
聲響味觸常三昧 성향미촉상삼매
如鳥空中只麼飛 여조공중지마비
無取無捨無憎愛 무취무사무증애
若會應處本無心 약회응처본무심
始得名爲觀自在 시득명위관자재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데 장애가 없다.
소리. 향기. 맛. 촉감. 등은 늘 삼매로다.
마치 새가 공중에 나는 것 같아서
취함도 버림도 사랑과 미움이 모두 떠났네!
이렇게 본래 무심한 경지에 이르면
비로소 관자재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네. 〈하략〉

법어 전문 바로가기

부산불교박람회 개막 "불교를 일상으로"

8월 7~10일, 벡스코 제1전시장서
선명상·사찰음식 체험존에 북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 모습.

불도(佛都) 부산에서 열리는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8월 7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막을 올렸다. 10일까지 이어진 이번 박람회에는 총 249개 업체가 참여해 372개 부스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불교 콘텐츠를 선보였다. 사전등록자도 2만9215명으로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가해 박람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차주 상보〉

개막 첫날인 7일 오전, 행사장 입구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고, 오전 10시 입장이 시작되자마자 전시장 내부는 순식간에 관람객들로 가득 찼다.

특히 선명상 체험존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마음굴림을 비롯해 미타선원의 행복선명상, 홍법사의 싱잉볼 치유 등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이 전문 지도자의 안내로 진행돼,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사찰음식 체험존에서는 관람객들이 조리 과정을 지켜보며 사찰음식에 담긴 철학과 수행자의 삶을 느꼈고, 일부는 직접 시식하며 소박하지만 깊은 맛에 감탄했다.

젊은 세대의 발길은 불교 굿즈 부스로 집중됐다. '해탈! 깬다!'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과 부처님 캐릭터를 활용한 티셔츠 등 전통과 유머가 절묘하게 만난 굿즈가 MZ세대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불교신문 부스에도 관람객들이 모여 응모 이벤트에 참여하고 신문을 살펴보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7일 열린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명상과 선 수행의 전통, 사회적 화합의 정신을 지켜온 도시"라며 "청년, 노동자, 약자 등 우리 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등하고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격려사에서 "명상과 수행, 예술과 공예, 참여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자리를 통해 불교와 불교문화의 가치가 일상의 언어로, 세대와 계층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은 개회사에서 "부산은 불교 도시를 넘어, 명상을 통해 치유와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세계적 웰니스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온과 삶의 통찰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축사에서 "박람회를 통해 불교의 지혜가 세대와 지역,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닿고, 팔정도의 가르침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또한 선명상과 평화, 치유의 공감대를 만들어 불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마음에 꽃 피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8일부터 10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의 법문을 시작으로 베트남 승가회의 경전 이운식, 하경 스님과 도림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 장산 스님의 영어 법문,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우 스님, 범어사 백중 법회서 '선명상' 강조

8월 2일, 1500여 명 동참
"수행이 곧 고통 이길 지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8월 2일 금정총림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 '백중지장기도 및 예수재 선지식 초청법회'의 법사로 나서 현대사회의 고통을 치유할 방법으로 '선명상'을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과 불자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진우 스님은 먼저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며 "경제는 세계 13위, 문화도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이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자살률 1위라는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고통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풀리지 못하고 업으로 쌓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빨리 살고, 너무 깊이 집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병들고 삶이 고달파진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이 같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초 명상'을 제안했다. '5초 명상'은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5초간 멈춤으로써, 감정을 알아차리고 분별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스님은 "화를 낼 것 같을 때 5초만 멈추고 '쉘 패스(She'll pass), 지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업장을 줄이고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계는 내 마음을 지키는 선이고, 인욕은 괴로움을 지나가는 길"이라고 덧붙이며, 수행이 곧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또한 "감정은 업이며, 그 감정은 죽음 이후에도 식(識)에 남아 윤회를 만든다. 몸은 흩어지지만, 마음에 품은 감정은 그대로 아뢰야식에 저장돼 다음 생을 결정한다"며 감정 수행이 곧 삶 전체를 바꾸는 길임을 역설했다.

법회에 앞서 정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위한 기도를 넘어, 생사에 갇힌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기도"라며 "무더위에도 이 자리에 동참한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매년 귀한 법문을 전해주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는 백중지장기도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선지식 초청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8월 9일 준한 스님, 8월 16일 광우 스님, 8월 23일 혜총 대종사, 8월 30일 도신 스님, 막재인 9월 6일 정오 스님, 회향 법회인 9월 9일(음력 7월 18일)에는 여산 정여 대종사가 마지막 법문을 전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 자비, 반려동물 복지로 확장되다

대원각사와 민관학불 협약



부산 장산 대원각사(회주 안도 스님)가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 구축에 나섰다.

대원각사는 7월 30일 해운대구반려동물협회, 동명대학교 반려동물대학, 메리츠화재 동부산본부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심리, 교육, 보험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펫퍼민트' 보험 이용자를 위한 병원·미용실 콘텐츠 제공 △반려동물 심리·훈련·건강 관련 세미나 및 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천도재와 펫로스 치유 활동 △대학생 서포터즈 및 실습 연계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등을 공동 수행한다.

대원각사는 협약을 계기로 그간 꾸준히 이어온 반려동물 추모의식, 천도재, 위패 봉안 등 불교적 치유 활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안도 스님은 "이번 협약이 생명존중 문화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명상협회, 도심 속 '깊은 쉼' 선사

북항 SUP 페스타서 선명상 체험



부산 해운대 송정 대운사 부설 부산명상협회(회장 주석 스님)가 '북항 SUP 페스타 2025'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사진〉

부산명상협회는 지난 7월 26일에 이어 8월 2일에도 북항 친수공원 내 야외 공간에서 '바디스캔 명상' 프로그램을 열고, 참가자들과 함께 감각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의 열기가 가라앉은 저녁 6시, 참가자들은 그늘 속 매트에 누워 주석 스님의 안내에 따라 몸의 감각에 집중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스캔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명상은 크리스탈 싱잉볼의 울림과 어우러져 참가자들에게 깊은 이완과 몰입을 선사했다.

주석 스님은 "몸의 감각을 통해 내면을 비추는 연습이야말로 현대인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백중기도 회향 백미·기금 전달

복지관 3곳에 쌀 1300kg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백중기도 회향을 맞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사진〉

미소원은 8월 5일 법당에서 백중기도 동안 마련한 1300kg를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800kg,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0kg, 부산동구자원봉사센터에 300kg이 각각 지원됐다.

이날 미소원은 지난 산청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2명에게 각 100만원, 총 200만원의 희망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기도와 나눔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50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13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7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99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 일정으로 돈황석굴과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10월10일~10월19일(9박10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끝)·돈황석굴-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9월10일 출발~9월15일 도착
11월25일 출발~11월30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 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중국 4대 석굴중 하나인 대족석굴, 낙산대불등 사천성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2일 출발~10월26일 도착
■ 일정: 인천-성도-대족석굴-낙산대불-3,077미터 아미산 케이블카 등정-성도-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10월23일 출발~11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11월30일 출발~12월0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11월26일 출발~12월03일 도착(8일간)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꽃길 따라 피어나는 명상 숨결, 지역을 품다

지역 불교人 화순 쌍봉사 주지 증현 스님

명상 · 연대 · 나눔 통해 만드는 화순불교의 새길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순불교사암연합회장인 쌍봉사 주지 증현 스님. 스님은 사찰이 기도와 수행 공간을 넘어,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찰은 수행을 넘어, 치유와 연대의 공간입니다"

천년고찰 전남 화순 쌍봉사(雙峰寺)가 명상과 문화, 지역공동체를 품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화순의 대표 사찰인 쌍봉사는 최근 '세계 명상 관광 사찰'이자 '남도 천년 사찰'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쌍봉사 주지이자 화순불교사암연합회장 증현 스님이 있다.

증현 스님은 "이제 사찰은 기도와 수행만의 공간을 넘어,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의 말처럼 쌍봉사는 지금, '마음을 꽃피우는' 공간으로 활짝 열려 있다.

꽃 명상, 세계로 피어나다

쌍봉사는 최근 명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찰의 기능을 넓혀가고 있다. '꽃 명상'을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은 '피어나는 마음, 물드는 하루'라는 부제로 경내 무설전에서 열리며, 명상·요가·차담·걷기·창작 체험이 어우러진 통합 힐링 콘텐츠다.

프로그램에는 플라워테라피 명상, 사운드배스 요가, 차크라 정화, 아로마 향기 명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걷기 명상,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만다라 채색과 식물 심기, 도자기 다구 만들기 등이 더해진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 '쉼'입니다. 꽃처럼 피고 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치유하는 명상의 시간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명상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범운영 당시 참가자 20명 전원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화순군도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50% 비용 지원을 약속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화순불교사암연합회 역시 증현 스님의 지도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소규모 사찰을 연합회원으로 적극 유치해,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국가 예산이나 제도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사찰들이 많습니다. 회원 사찰들이 십시일반 모아 도움을 주고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품고 주민과 함께

쌍봉사는 국보인 철감선사탑과 탑비, 대웅전을 비롯해 보물인 지장보살상, 전남유형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등 다수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화순 11경 중 9경으로도 등재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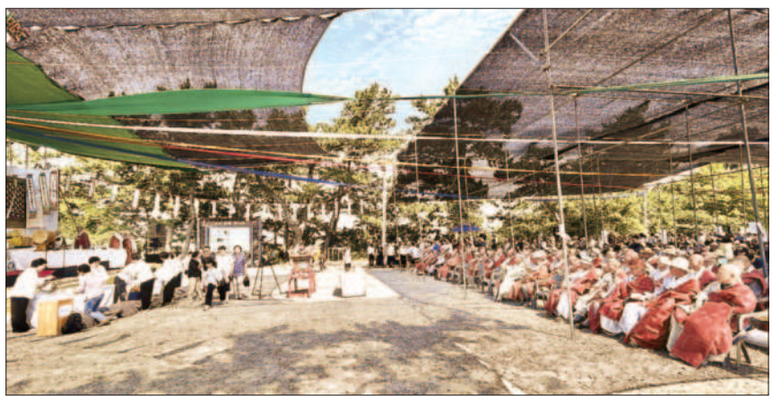
최근에는 문화관광특구 지정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쌍봉사 인근의 의병 무기고, 학포당, 조광정 생가 등 지역 역사 자원과 연계해 이양면 전체를 문화관광벨트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쌍봉사는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쌀농사, 밭일, 김장 나눔, 반찬 배달 등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찰과 마을이 함께하는 동짓날 팥죽 나눔도 매년 진행된다.

"주민과 절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찰의 수행은 공동체 속에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쌍봉사가 수행과 명상은 물론, 문화·복지·교육을 아우르는 지역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숭총림, 본말사 합동 생전예수재 회향

8월 1일, 간월암 일원서 수륙영가천도재도 봉행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가 8월 1일 서산 간월암 일원에서 '본말사 합동 생전예수재 회향 및 수륙영가천도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8월 1일 서산 간월암 일원에서 '본말사 합동 생전예수재 회향 및 수륙영가천도재'를 봉행했다.

생전예수재는 생전에 참회와 수행으로 공덕을 닦는 법회로, 영산재·수륙재와 함께 불교의 3대 의식으로 꼽힌다.

수덕사는 지난 6월 14일 생전예수재에 입재해 이날 회향을 맞았으며, 선망부모를 비롯해 태중영가와 법계의 외로운 영령들을 천도하기 위한 수륙대재도 함께 봉행했다. 법회에는 방장 달하 우송 스님을 비롯해 주지 도신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종회의원 정범 스님 등 본말사 사중 스님들과 신도 및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의식은 오전 9시 30분 시련과 대령의식을 시작으로 △관욕 △조전 △점안 △사자단 육감확청 △명부청량 △고사단 △마구단 순으로 봉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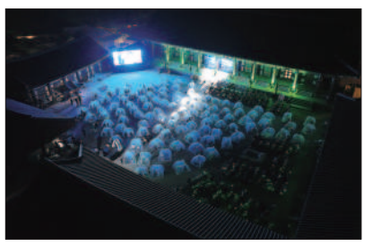
방장 우송 스님은 법문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놈'이 태초이고 언제나 새출발이며 마음의 중심"이라며 "이 주인공을 돌이켜 바라보는 것이 생전예수재의 본질이자 수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그 감응 속에서 업장이 순화되고 수행의 그릇이 닦인다"고 설파했다.

우송 스님은 "〈금강경〉과 〈화엄경〉, 경허 스님의 선법도 결국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놈'에서 시작된다"며 "간월암에서 10년, 수덕사 대웅전에서 천일 동안 관음기도를 이어온 그 마음이 바로 이 시대 수행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동참 대중은 수륙영가를 위한 시식과 봉송, 액운을 태워 보내는 소전의식을 봉행한 후 바닷가에서 자비실천과 해탈을 기원하는 방생의식을 거행하며 법회를 회향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여름밤 감동, 화엄사 모기장 음악회 성료

8월 2일, 화엄원 특설무대서 '뮤지컬 갈라' 700여 명 동참



지리산 고찰 화엄사가 무더운 여름밤을 문화와 예술로 수놓았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8월 2일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제5회 지리산 대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 '뮤지컬계의 신사 이건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라는 부제로 관객 700여 명이 함께 한 이번 음악회는 관람 예약이 오픈 15초 만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공연은 식전 뮤지컬 영화음악 상영과 대북·범종 영상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뮤지컬 배우들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넘버 '대성당들의 시대'를 시작으로 '오페라의 유령', '겨울왕국', '알라딘', '시카고', '레베카' 등 유명 뮤지컬 음악을 연달아 선보였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행복을 나누는 자리"라며 "여러분 앞에 놓인 감자와 옥수수, 에코백 하나하나에도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음악회는 이름 그대로 '모기장 안에서 관람하는 특별한 공연'으로 '일상 속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음악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찾는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스님과 관객이 함께 자연과 호흡하고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이 독특한 구성은 '화엄사 음악회'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립 1년 창원불교신도회 "불교 발전 매진"

7월 24일, 창원 세코연회장서 "출·재가 함께 불교 발전 견인"



창립 1주년을 맞은 창원특례시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이상연)가 7월 24일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창원 세코연회장에서 열린 기념법회는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하며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창원불교사암연합회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상임고문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과 태고종 경남종무원장 관음사 황봉 스님을 비롯한 부회장 지암 스님, 성욱 스님, 감사 혜명 스님, 재무부장 선해 스님, 복지부장 성우 스님, 정법사 명원 스님 등 지역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상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7월 창립법회와 자비나눔 성금 행사, 삼보일보 행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널리 전하는 불교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 스님은 격려사에서 "지난해 많은 불자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출범식을 했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고하고 "불교계와 시민들의 지지 속에 신도회가 지역불교의 중심 조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처럼 조직화된 신도회가 출범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앞으로도 불교계와 신도회가 두 바퀴처럼 굴러가며 창원불교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남 사찰들, 청소년·어린이 품다

용흥사·동원사, 여름캠프 잇달아


광주 동원사가 8월 1~2일 진행한 여름캠프 기념촬영.

학업 스트레스에 지친 청소년과 무더운 여름에 지친 어린이들이 전남 사찰로 향했다.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2회 용흥사 미르닐 청소년 여름 명상캠프'를 개최했다.

계곡에서의 오감 명상과 조별 스토리텔링, 나누기, 호흡·동작 명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학업과 감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보냈다.

주지 덕유 스님은 "천년고찰 산사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귀한 인연을 맺은 것"이라며 "이곳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 스님)도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4차 동원사 여름캠프'를 개최해 유치부 및 초등학생 45명과 1박 2일간의 사찰 체험을 함께했다.

'마음 숲에서 놀자'를 주제로 한 이번 캠프는 아이스브레이킹, 빈그릇 공양, 놀이 명상, 마음 만들기, 환경 이야기, 불빛 명상, 협동 미션, 춤 명상, 물총놀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어린이들이 불교와 자연, 공동체의 가치를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회주 지각 스님도 "함께 웃고 자며 지낸 이번 경험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싯달타 어린이 템플스테이'

8월 1~3일 40여 명 동참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스님)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5 싯달타 여름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여름 어린이 템플스테이는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동참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입재식에 이어 타종 체험과 108배, 연꽃등·염주 만들기, 명상 걷기, 영화 관람 등이 진행됐으며, 봉강요에서 도예 명장과 함께하는 도자기 만들기도 체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 4개 사찰, 율리구치소 자비나눔

300만원 상당 물품 전달



울산 보덕사(주지 효암 스님), 열린선원(주지 창윤 스님), 황룡사(주지 황산 스님), 정토사(주지 성심 스님)는 7월 28일 울산 율리구치소(소장 김홍대)를 방문해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사진〉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수 500mL 5000병, 슬러시형 아이스크림 800개, 컵라면 800개를 마련한 것.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은 "사찰의 작은 정성이 구치소 안의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전 형통사, 윤6월 생전예수재 봉행

혜총 · 성림 대종사 증명



대전 보문산 형통사(주지 용담 스님)가 8월 3일 을사년 윤6월을 맞아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사진〉

2층 큰법당과 경내 일원에서 열린 이날 입재 법회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와 통도사 성림 대종사가 증명으로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법문에서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지은 업을 참회하고 정화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이라며 "마음을 닦고[修心] 기르고[養心], 바르게 쓰는 것[用心], 이 세 가지가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천안 마이트리 봉사단, 삼계탕 나눔

7월 23일 천안 서부역 광장서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이트리 봉사단(단장 혜정 스님)이 7월 23일 천안 서부역 광장 무료급식소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다.〈사진〉

이날 공양은 청주에 거주하는 불자 이점식 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봉사단은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을 위해 삼계탕 150인분을 정성껏 조리해 나눴다.

봉사단장 혜정 스님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께 시원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동국대, K-불교 세계화 'AI플랫폼' 구축

7월 30일,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발표회

"조선 언해불경 콘텐츠 시맨틱 네트워크 구축"
5개년 사업…플랫폼 제작 미디어아트 등 활용 가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가 'K-불교 세계화'를 위해 AI기술로 불교한글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플랫폼' 구축에 나서 눈길을 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상일)는 7월 30일 교내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불교한글문화유산 디지털큐레이션 지식정보 관계망 활용 사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2024년 11월 시작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1차 연도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하정수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단 총괄팀장이 발표한 '1년차 성과보고'에 따르면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15세기 문화의 총아인 18종 88책의 불교한글문화유산이 지닌 지식정보들을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Quration)으로 모으고 시맨틱(Semantic)을 기반으로 연결해 대중들이 편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한다.

'디지털 큐레이션'은 넘쳐나는 디지털 자원을 제공·보존·유지·아카이빙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맞춰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이며, '시맨틱'은 정보의 연계를 통해 웹 자원을 지식화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검색·통합·재사용을 도모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하 총괄팀장은 "불교한글문화유산에 대한 일반 대중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체계적 디지털 큐레이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 맞춤형 검색 플랫폼 제공도 필요하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불교한글문화유산 디지털큐레이션 지식정보 관계망 활용 사업'은 한글불경의 이미지 수집 및 가공과 현 시대에 맞춘 새로운 번역과 이에 대한 디지털 구현, 시맨틱DB 생성 및 활용 플랫폼 구축 등이 총 5개년 동안 진행된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는 7월 30일 교내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불교한글문화유산 디지털큐레이션 지식정보 관계망 활용 사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 내외빈 기념촬영.

올해에는 〈석보상절〉23·24, 〈월인석보〉8·15·21·25, 〈금강경언해〉 3종 7권의 새로운 번역과 이중 3종 6권에 대한 디지털 큐레이션이 완료됐다. 또한 외부기관과 협력해 △시맨틱맵 작성 △〈안락국태자경〉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 아트 제작 △AI-OCR(광학문자인식) 구축 등도 진행됐다.

하 총괄팀장은 "내년 중으로 시맨틱을 연결하고 AI활용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최종 5년차에는 시맨틱맵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베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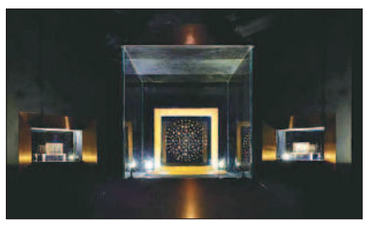
김상일 한국문학연구소장은 "단지 문헌을 정리한 결과물이 아니라, 전통을 현대 기술과 연결하려는 치열한 학술적 노력의 결실이며, 동시에 미래의 문화·교육·콘텐츠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초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대해 불교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치사를 통해 "동국대 문학연구소의 사업은 시맨틱과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불교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방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해외불교는 지금

불탑 진신사리, 127년 만에 인도 환수

1898년 영국인 처음 발견
5월 국제 경매 돌연 출품
印 "인류 공동 유산 상징"


지난 5월 소더비 경매에 출품됐던 피프라와 유물들. 사진출처=BBC

지난 5월 국제 미술품 경매회사인 소더비에 출품됐던 피프라와 불탑유물과 진신사리가 마침내 인도로 반환됐다. 한 세기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성보들에 대해 지난 7월 31일 'BBC', '더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이 특별 보도했다.

고고학자들이 현대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로 묘사한 피프라와 유물들은 1898년 영국인 윌리엄 클랙스턴 페페가 룸비니 근처의 피프라와의 불탑에서 발굴한 것이다.

1세기 넘게 페페 가문의 소유였던 진신사리와 사리장엄구들은 그간 전 세계 박물관과 특별전에 대여·전시됐다. 한국에서도 지난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에 전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 유물들은 돌연 소더비 홍콩 경매에 출품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불교계는 일제히 성토했다. 당시 유물의 소유자인 윌리엄 페페의 증손자 크리스 페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물을 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모든 방안에 문제가 있었고 경매가 "이 유물을 불교도에게 이전하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보인다며 경매에 출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가속하면서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교적 개입을 선언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매는 취소됐다. 이에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대기업 고드레즈 인더스트리 그룹이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약 두 달 간의 조율 끝에 고드레즈 그룹이 유물들을 인수했다.

유물 인수 후 피로샤 고드레즈 고드레즈 그룹 부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프라와 유물들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평화, 자비, 그리고 인류 공동의 유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의미 되짚다

한국불교사연구소 학술대회
8월 22일 동국대 법학관서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시집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문학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와 만해아카이브연구소(대표 이창경)는 8월 22일 오후 1시 동국대 법학관 멀티미디어강의실 163호에서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얏서요 어서 오서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수행자이면서 시인, 독립운동가 등 다양한 삶의 궤적을 보인 만해 스님의 사상과 〈님의 침묵〉 속 '님'의 의미를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의 '만해 정신에서 〈님의 침묵〉의 불교적 위상'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정효구 충북대 국문과 교수가 '님의 탄생과 님을 위한 법어(法語)들'을, 박현수 경북대 국문과 교수가 '〈님의 침묵〉 전편 해설의 관점과 차이점'을 발표한다.

이어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이 '출간 100년의 〈님의 침묵〉 독자 확산 양상 연구를', 홍승진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님의 침묵〉 정본화의 진전과 평가'를, 정치훈 서울사이버대 외래교수가 '〈님의 침묵〉 새로운 100년의 전망과 비전'을 주제 발제한다.

신중일 기자

월탄 대종사 사상·원력 조명한다

불교신문 · 한국불교학회
8월 21일 학술대회 개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를 역임했던 선지식 미륭당 월탄 대종사 열반 3주기를 맞아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금오미륭문도회(대표 성운 스님)와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8월 21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륭당 월탄 대종사 선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불교신문(사장 수불 스님)과 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가 공동 주관한다.

조계종 원로의원 보광 대종사(동국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여는 학술대회에서는 월탄 대종사의 삶과 사상, 원력들을 살펴보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월탄 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는 '월탄 대종사의 정체성과 종단관'을, 김경집 동국대 교수가 '월탄 대종사의 정화운동과 종단개혁'을 각각 조명한다.

또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월탄 대종사의 불사와 전법'을,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이 '월탄 대종사의 교육관'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 한상길 동국대 교수,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연구원 선지 스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참여한다.

신중일 기자

태국 시민사회, 불교계 쇄신 요구

출가자 형사처벌 요구 높아져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소(NIDA)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태국 불교도들 사이에서 승단 내의 범계행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불교 전문미디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7월 22일 NIDA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태국 불교계의 여론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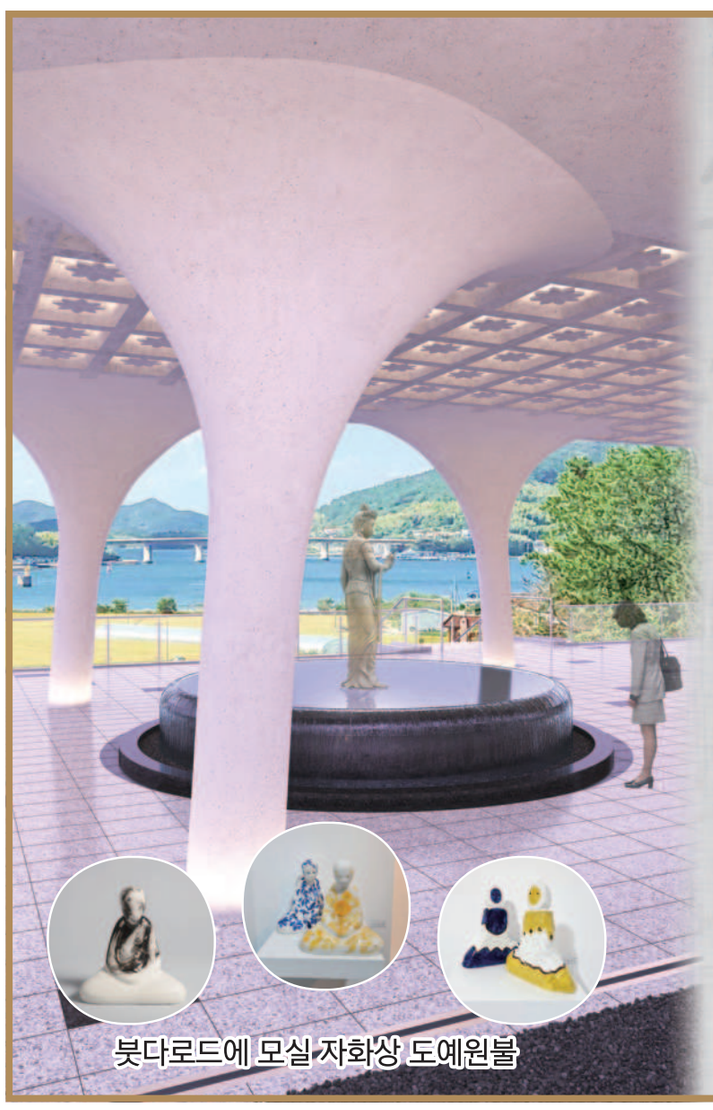
'불교계의 위기'라는 제목의 NIDA 여론조사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스스로를 불교인이라고 밝힌 18세 이상 1310명의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응답자의 76.11%가 가장 많이 언급한 우려는 출가자의 위의에 대한 문제였다. 최근 태국에서는 대형 사찰들을 중심으로 금전, 음주, 여성 문제가 얽힌 대형 스캔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는 불교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안 초안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이 법안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의 80.76%에 달하는 대다수가 승려의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지지했다.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설문조사 결과는 태국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승단 내 개혁과 책임의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동참방법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붐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부처님은
누구든지 정법이 머무는 도량을 세우고 공양하면 그 공덕은 인간세계에서나 하늘 세계에서 널리 빛나며 끊이지 않고 세세생생 영속해서 번뇌와 업을 소멸하는 힘이 있기에 자자손손 부귀공명을 누리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건 불사는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터전을 마련하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선근공덕입니다.

‘사찰음식’ 세계화, 석학들이 논한다

문화사업단, 국제학술심포지엄
8월 19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美 · 英 등 5개국 6명 석학 참여
서울 진관사 등 사찰음식 팸투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만의 독창적 식문화인 ‘사찰음식’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은 “오는 8월 19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사업단이 개최하는 첫 국제학술행사로,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하고 사찰음식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목적으로 열린다.

‘지속가능한 음식문화로서 사찰음식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5개국 6명의 음식학 석학들이 참여해 △세계 음식학계의 현황 △사찰음식의 위치 △대안음식문화로서 사찰음식의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세계 양대 조리교육기관 중 하나인 미국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의 학장 ‘브렌던 R. 월시(Brendan Walsh)’가 참석한다. 월시 학장은 조리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 수상자이자,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셰프 중 한 사람으로 사찰음식과 한식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전문연구자로는 △2024년 한식진흥원 주최 국제컨퍼런스 주요 발표자였던 양종집 미국 CIA 아시아음식학부 교수 △불교음식·의례 전문 연구자인 트레이시 리우(Tracy Liu)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글로벌 창의적 사고 연구소 연구원 △불교의례·차문화 전문가 케한 딩(Kehan Ding) 영국 에딘버러대 철학과 강사가 참여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음식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파올로 코르보(Paolo Corvo) 이탈리아 미식과학대교수 △중국 종교학·음식학 전문 연구자인 토마스 두보이스(Thomas David DuBois) 베이징사범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적문 스님이 기조강연을 하며, 불교음식학 전문가 공만식 동방대학원대학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와 함께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사찰음식 팸투어’ 프로그램도 8월 16~18일 진행된다. 팸투어는 백양사 템플스테이 및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 참가를 비롯해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한국사찰음식 전문교육관 향적세계’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찰음식과 한식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 참석 희망자는 8월 1일부터 한국사찰음식 홈페이지(koreatemplefood.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최대 1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제23회 유심문학상 박준·김상규·강화길

9월 5일 만해마을서 시상식


제23회 유심문학상 수상자 박준 시인(시 부문), 김상규 시조시인(시조 부문), 강화길 소설가(소설 부문).(왼쪽부터)

만해 한용운 스님과 설악 무산 스님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23회 유심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유심상 주관 단체 (재)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는 “제23회 유심문학상 수상자로 시 부문 박준 시인, 시조 부문 김상규 시인, 소설 부문 강화길 소설가가 선정됐다”고 7월 30일 밝혔다. 다만, 평론 부문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제23회 유심상 심사위원회는 시 부문 수상자 박준 시인에 대해 “기존 서정시의 관습적 틀에서 벗어나 일상적 구어를 통해 사소한 순간을 밀도 있게 포착하고 있으며, 여백을 통해 ‘의미화되지 않는 여운’을 구현하는 미학적 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조 부문 수상자 김상규 시인은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결핍의 정서를 섬이라는 공간에 투영해 독창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전통적 시조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제재나 주제의 확장에 따른 정형의 경계 넓히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소설 부문 수상자 강화길 소설가에 대해서는 “동시대 여성 서사의 정점을 보여 주는 작가로서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억압의 다양한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면서 깊은 울림과 보편적 공감을 얻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서사적 지평을 열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제23회 유심상은 이숭원 문학평론가가 심사위원장으로, 손택수 시인·정수자 시조시인· 윤대녕 소설가·김종욱 문학평론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시상식은 9월 5일 오후 6시 강원도 인제군 동국대 만해마을 문인의집 대강당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각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연기적, 주체적으로 사고하라

⑤ 제법무아

諸法無我

불교 용어 가운데 일부는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과정에서 본래의 뜻이 흐려졌다. 대표적인 예가 열반과 무아다. 열반은 인간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흔히 ‘열반에 들었다’고 표현하면서, 열반은 점차 스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인식되었다. 무아 역시 철학적 의미에서 벗어나 감성적으로 변형되었다. 우리는 종종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표현을 쓴다. 책이나 풍경에 매료되어 자신을 잊고 몰입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독서삼매’와 같이 쓰인다.

이처럼 자신과 대상의 경계를 잊고 몰입하는 삼매의 상태를 무아로 혼동하거나, 무아를 몸과 마음, 정신의 작용을 부정하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석가모니 붓다 이전의 인도에서는 세계를 주재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절대적인 ‘단일자’를 상정했다. 이를 ‘브라흐마나’ 또는 ‘아트만’이라 불렀다. 브라흐마나는 우주적 신성이며, 아트만은 개별 존재 안에 깃든 신성이다. 아트만은 ‘항상 하나로서 주재하는 존재(常一主宰者)’로 번역되었고, 중국에서는 이를 ‘아(我)’로 옮겼다.

인간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의 존재를 상정하며 위안을 얻고자 한다. 당시 사람들은 아트만이 각 개인 안에 존재하며 감각과 사고를 조정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쉽게 왜곡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모두 배후에서 아트만이 시킨 일로 여긴다면, 단일 주재자인 아트만은 책임지지 않는 모순된 존재가 된다. 이러한 논리는 차별과 억압,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모든 일이 아트만에 의해 조정되었다는 전제가 그 근거가 된다.

이에 붓다는 단호히 선언했다.

“아트만? 그런 것은 없다.”

아트만은 어떤 현상에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허구이며, 그럴듯한 논리로 꾸며 낸 망상의 산물일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와 삶의 양상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가? 불교는 이에 대해 ‘연기(緣起)’를 말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이처럼 상호의존이라는 연기의 법칙 안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불교는 ‘무엇이 움직이는가’ 대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주목한다. ‘어떻게’에 자유의지를 불어넣으면 ‘무엇’이 된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에 달렸다.

〈화순 불암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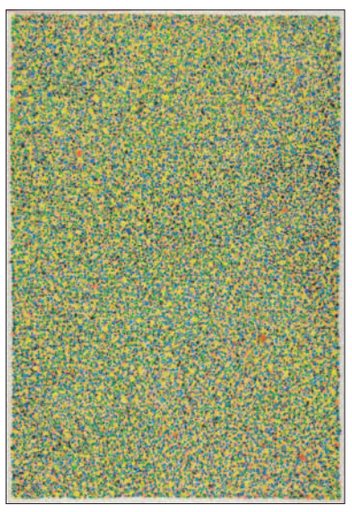
‘점’을 통해 명상하고 사유하다

솔뫼 정현식 16번째 개인전
모노하 한남서 8월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모노하 한남은 8월 6일부터 19일까지 정 작가의 16번째 개인전 ‘알아차림, 점을 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오랜 시간 탐구해 온 ‘점’이라는 행위와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재해석한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점’이 갖는 의미를 “멈추고 숨 쉬며 ‘알아차림(awareness)’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그는 점을 통해 현재의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표현하며, 이 행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간절한 기도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작가는 “생은 밥숟가락을 들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축적하는 일”이라며 점을 통해 삶의 의미와 철학적 성찰을 이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 작가의 작품은 선불교의 ‘알아차림’ 명상 사유와 연결된다. 그는 “점을 쓰는 수십만 번의 차이의 숭고한 반복은 법을 넘어서는 예술적 사건이며, 의식의 흐름과 감정을 새겨 놓는 총체적 사유의 결정체”라고 말한다. 그의 작품은 점의 반복과 형상성을 통해 인식의 전환과 치열한 수행의 울림을 담아내며, 고정된 생각을 넘어선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보여 준다.


정현식 작가의 작품 ‘알아차림, 점을 쓴다’.

신중일 기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재가 거사가 법을 설하다!
유마경
공과 무상, 불이사상을 담고 있어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면서 선불교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유마경이 혜원 스님의 현대적 예화와 강설에 의해 새롭게 다가온다.
혜원 강설/신국판변형/양장/320쪽/값 21,000원

페미니스트는 불교도가 될 수 있는가?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
저자는 여성과 남성 공히 젠더 정체성에 갇혀 고통받고 있으며, 젠더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불교의 무아, 공성에 대한 깨달음에 있음을 보여준다.
리타 그로스 지음, 김민정 옮김/신국판/272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6~8/12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엔카의위빳사나10일코스-큰활자본	윌리엄 하트	김영사
2	조계고승전	백운	불교신문사
3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불광출판사
4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5	예수재의범	해사	운주사
6	생명의 꽃 묘법연화	석봉곡	조계종출판사
7	마음챙김의 시	류시화	수오서재
8	무비스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	여천 무비	담앤북스
9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불교신문사
10	THE DIAMOND SUTRA(금강경영어판)	무비,조현춘 공역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초역부처의 말(2500년동안사랑받은)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3	붓다의 가르침:라훌라스님의 현대적 사고로 쓰인 불교해설서	월폴라 라훌라 (Walpola Rahula)	맑은소리맑은나라
4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불교문화(조계종 신도교재4)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업설지장경(현대의 영험록 수록)	신춘열 엮음	광륵사
7	에니어그램 행동특징과 명상상담 전략(명상상담01)	인경 지음	명상상담연구원
8	마하시사야도의 담마짝까법문:초전법륜경해설(큰북셋)	일창 담마간다 역	불방일
9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수록*법정스님원적 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지안스님의 승만경강의	지안 강설	운주사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연의 마음'



달팽이를 사랑한 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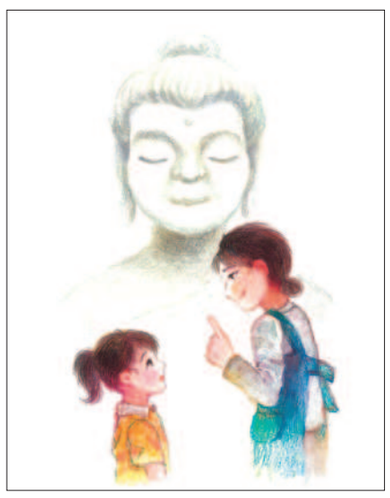
여태동 글 / 여민 그림
선묵 혜자 스님 감수
도서출판 해조음 / 1만3000원



소나무와 자작나무

함성호 글 / 김민주 그림
국수 / 1만5500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아이들에게 자연은 좋은 친구이자 스승이다. 〈달팽이를 사랑한 송아〉(왼쪽, 그림 제공=해조음)와 〈소나무와 자작나무〉(그림 제공=국수) 속 한 장면.

주말농장서 만난 자연의 친구들
사라진 달팽이로 '인연법' 깨달아
"자연과 교감하는 생명 이야기"

함성호 시인이 읽은 '나무의 마음'
김민주 화가가 한국화로 그리다
"두 나무의 마음이 시가 되듯"

아이들에게 자연만큼 친근하고 좋은 친구가 있을까. 자연을 담은 동화책 역시 아이와 함께 읽고 감상하며 대화를 나누기 더없이 좋은 친구다.

〈달팽이를 사랑한 송아〉는 송아가 자연을 벗하며 도시농부로 살고 있는 아빠의 주말농장에서 만난 달팽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겪는 이야기다.

틈만 나면 주말농장에 가는 아빠를 따라나선 송아는 심심하던 차에 비닐하우스에서 달팽이를 발견한다. 소름 끼치게 놀란 것도 잠시. 친구도 없이 혼자 있는 달팽이가 안타까웠던 송아는 며칠만 키우자며 집으로 데려온다. 배춧잎과 과일을 잘라 먹이로 주고 똥도 치워주며 달팽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그런데 어느 날, 달팽이가 사라졌다!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결국 달팽이를 찾지 못한 송아는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한다. 이튿날 가까스로 달팽이를 발견한 송아는 달팽이를 다시 농장으로 보내 준다.

그때, 송아는 연꽃유치원에서 선생님께 배운 부처님 가르침이 문득 떠올랐다. "좋은 생각을 하며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인연법'이다.

"달팽아, 잘 가. 올해는 농장에서 잘 살고, 아기도 많이 낳아 기른 후 겨울에 땅속에서 잘 지내다가 내년에 또 만나자."

불교신문 기자로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여태동 작가가 글을 쓰고, 딸인 여민 씨가 그림을 그렸다. 여태동 작가는 "요즘 어린이들이 경쟁에 떠밀려 동심의 세계를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자연과 교감하는 생명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동심 가득한 '한 명 한 명의 송아'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동화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감수를 맡은 선묵 혜자 스님은 "요즘 어린이들은 자연을 벗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며 "많은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저마다의 마음속에 '평화의 불'이 깃들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 되길 발원한다"고 추천사를 썼다.

나무는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어떤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고, 어떤 나무는 감미로운 향기를 만들어 내고, 또 다른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낸다.

〈소나무와 자작나무〉는 이러한 '나무의 마음'을 시와 그림으로 엮은 책이다. 함성호 시인은 소나무의 향기를 맡고 자작나무의 노래를 듣고, 그 두 나무 사이에 있는 호수가 숲속 나무들의 '하얀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자작나무의 노래는 소나무의 향기를 하얀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소나무의 향기는 자작나무의 노래를 하얀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호수의 눈이 깊어질수록 향기는 더 짙어지고 노래는 더 멀리 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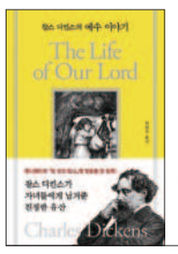
함성호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숲과 나무, 나무와 호수, 나무와 나무의 풍경을 한국화가 김민주 작가가 여덟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잔잔한 시와 그림이 마음 가득 새겨진다.

함성호 시인은 1990년 〈문학과사회〉 여름호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해 1991년 〈공간〉 건축 평론 신인상을 받았다. 시집 〈56억 7천만 년의 고독〉, 〈聖 타즈마할〉 등과 티베트 기행 산문집 〈허무의 기록〉, 건축 평론집 〈건축의 스트레스〉 등을 펴냈다.

김민주 작가는 '숲을 그린 까닭(2014년, 서울, 갤러리조선)'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지원하는 시각예술작가로 선정됐다. 〈소나무와 자작나무〉에 담긴 그림으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웃 종교 책 읽기

아이 눈높이로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예수이야기

찰스 디킨스 지음
민혜숙 옮김
이른비 / 1만3000원

자녀 위해 집필…85년 만 출간
자상하고 친절한 예수의 생애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에 영감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 포스터.
사진 출처=모팩스튜디오

올해 4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는 미국에서만도 6000만달러(약 820억 원)의 매출을 올려 북미 박스오피스 역대 한국 영화 1위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8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이 영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의 일생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종교적 색채를 지녔음에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의 원작은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1812~1870)가 쓴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다.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번역서가 다수 출간되었는데, 책의 어떤 매력이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에 전해진 것인지 궁금해 그중 한 권인 〈찰스 디킨스의 예수 이야기〉를 골랐다.

먼저 책이 출간된 과정이 눈길을 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찰스 디킨스가 1846년에서 1849년 사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쓴 책이다. 다만 디킨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에서 집필한 이 책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1870년 그의 사후 처제와 디킨스의 여덟 번째 아들 헨리 경에게 남겨졌다. 이후 헨리 경이 1933년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이듬해 5월 처음으로 출간됐다.

디킨스는 이 책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리'보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의 삶을 쉽고 재미있게 재구성했다. 성경에 기반해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도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자상하게 설명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어머니 이름을 마리아였어. 베들레헴은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에, 여관이나 가정집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방은 없었지. 그래서 그들은 허름한 숙소에 딸린 마구간으로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다." -27p 중에서

디킨스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인류의 사랑과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겸손하게, 진심으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존중한다면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당부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이에게 조근조근 읽어 주기 좋겠다는 부러움이 드는 한편, 불자로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들려주는 책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든 책이다.

여수령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강진 상처 미얀마에 자비로 '동행'하다

조계종 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7월 23~29일 미얀마서 자비나눔
4월 1일부터 모연 구호기금 전해

12개 피해마을에 8000만원 전달
대형 정수 시설, 태양광 램프 등
오지 마을에 생활 기반시설 설립

시타구불교협회에 12만달러 기부
만달레이 도시, 사원 등 복구 활용
"늦어서 미안하다…희망 잃지 말길"

미얀마 만달레이=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은 7월 23~29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지진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일화 스님(사진 오른쪽)과 진허 스님(사진 왼쪽)이 샤카르테 마을 아이들을 안고 웃는 모습.

지난 3월 28일 진도 7.7의 강진이 불교국가 미얀마를 덮쳤다. 미얀마 국민 3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5000명 넘게 다쳤다. 건물과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들이 붕괴됐고, 미얀마 국민들의 정신적 기둥인 불교 사원들도 크게 손상됐다.

강진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미얀마 아픔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이하 동행)과 찾은 미얀마 만달레이의 현장은 그랬다. 다리는 끊어졌고, 이재민들은 곳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 12곳에 희망의 손길 전하다

동행 지원단은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지진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자금과 물품들을 전달하며 자비나눔 활동을 펼쳤다.

복구 자금과 물품 지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미얀마 강진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을 통해 모연된 것으로 이번 활동으로 2억4500만원을 피해 주민과 현지 불교계에 전달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해외주민운동연대(KOCO)를 통해 12개 마을 1200여 가구에 태양광 램프, 식료품 키트, 아이들 장난감, 관정시설·대형정수기 설치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장난감의 경우 재난지역에 대한 정서적 지원 확대라는 현장 추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동행 지원단이 지원한 마을 12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로 구호단체들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들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7월 25일 동행 지원단이 찾아간 첫 마을인 에텔레(Yaw Htwet Lay)는 243가구 정도의 주민들이 땅콩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농촌마을로 지난 강진으로 기반시설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행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에텔레 주민들은 마을의 사원 초입부터 "밍글라바(안녕하세요)"라고 외치며 환한 미소로 동행 지원단을 맞이했다.

"국내와 미얀마 사정으로 늦어져서 미안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 고맙다"고 전한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희망을 잃지 말길 당부했다. 스님은 "지진과 정치 갈등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 것 같은 데도 항상 웃는 모습에서 미얀마 국민들의 저력을 본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의 환한 미소가 미얀마의 희망을 말해 준다. 미얀마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행 지원단이 찾은 에텔레 마을에서 진행된 기념촬영.



레인콘 주민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일화 스님과 진허 스님.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램프를 살펴보는 일화 스님.



일화 스님과 진허 스님이 시타구 사야도에게 지원금 12만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레인콘 마을 주민들이 일화 스님에게 보답을 위한 공양물을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찾은 샤카르테(Sa kar Te) 마을에서도 동행 지원단에 대한 환영은 이어졌다. 어린이 2명이 일화 스님과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진허 스님에게 금꽃 목걸이를 걸어 주며 예를 표했다. 이 마을 역시 69가구가 농사로 삶을 이어가는 작은 촌락으로 강진에 삶의 기반들이 무너졌다.

일화 스님과 진허 스님은 두 마을에서 태양광으로 충전해 사용하는 램프를 비롯해 쌀, 소금, 식용류, 양파,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는 장난감 보따리를 풀었다.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들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다.

의대를 지망했지만 강진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에텔레 주민 따타수이(20) 씨는 "필요한 물품들을 한국불교 스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멀리 한국에서 미얀마까지 와 주신 스님과 지원단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생활이 어려워져 돈을 벌어야 한다"며 "지진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안정화되면 외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고,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지에 빛 · 물 전하는 '아름다운동행'

7월 26일 동행 지원단은 녀엉콘(Nyaung Kone)·레인콘(Lein Kone) 마을을 찾아 쌀, 소금, 식용류 등 식용품과 양은냄비, 바구니 등 생활용품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원단은 KOCO를 통해 녀엉콘 마을에 설치된 대형정수기와 태양관 램프 등을 확인·점검했다. 마을 우물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정수하는 대형정수기는 1시간에 500ℓ의 물을 정수·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강진 이후 심각한 식수난에 시달리던 마을 주민들에게는 '감로수'와 다름 없었다.

오지 마을들의 정수시설 설치를 진행한 자르미 피스센터 본부장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 7km 이상을 걷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다. 강진 피해 이후에는 도로와 다리가 파괴돼 물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웠다"면서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조계종과 동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일화 스님은 "물은 생명과 같다. 좋은 물을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면서 "한국불교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녀엉콘 마을에는 동행이 지원한 16개의 태양광 램프가 설치됐다. 낮 동안 태양광 패널로 충전하고 저녁에는 불을 밝히는 태양광 램프 역시 주민들의 야간통행 등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불교계의 지원에 마을 주민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녀엉콘 주민 쉬에즈(21) 씨는 "한국불교계에서 마을을 찾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마을에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다"며 "지진으로 집이 기울었고 생활도 어려워졌다. 지원 물품으로 온 가족이 열흘 정도 넉넉히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눔을 나눔으로 보답하는 주민 '감동'

지진으로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군부 쿠데타로 정치는 혼란스럽지만 지금의 미얀마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선한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강진으로 집이 전부 무너지는 피해를 입고 현재는 소를 키우고 잡초를 베며 살아가고 있는 마후이마(36, 샤카르테 거주) 씨는 "지진으로 피해를 겪고 트라우마도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울먹였다.

'생활이 안정되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마후이마 씨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기부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직접 만든 수공예품, 농사 지어 재배한 땅콩까지 이국에서 온 스님과 지원단에게 보답품들의 행렬도 이어졌다.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과 아쉬움마저 느껴졌다.

땅콩을 한아름 가져와 지원단에 전한 띠 라밋(40, 샤카르테 거주) 씨는 "마을을 도와준 한국불교 스님과 지원단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라며 "이 공양물을 스님들이 드시면 힘을 내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동행, 현지 사원 6곳 재건 지원

앞서 동행 지원단은 7월 24일 사타구 불교도협회 사가잉 지부 위파사나 센터 본관을 찾아 사타구 불교도협회에 미화 12만달러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아신 나니사라 시타구 샤야도를 비롯해 불교협회 중앙종회의원 스님, 피해 사찰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협회 최고 위치의 아신 나니사라 시타구 샤야도는 스님들을 대표해 조계종 스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와 미얀마 불교는 형제 같은 유대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대승과 소승, 한국과 미얀마, 중국불교는 모두 하나의 강에서 출발했다. 오늘 한국불교의 지원은 전 세계불교가 일불제자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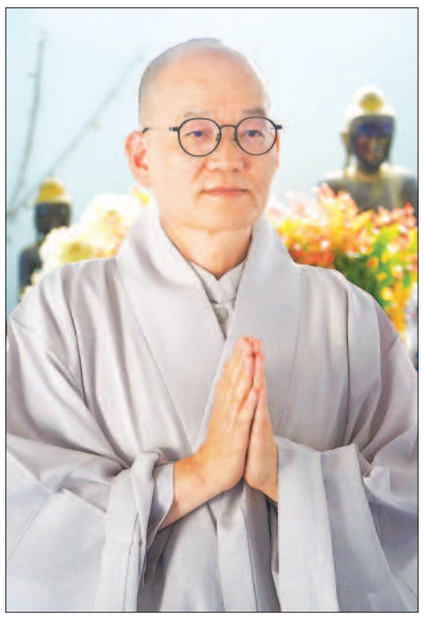
일화 스님은 "더 많이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작은 정성이 도움이 돼 미얀마 불교와 국민들의 삶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동행이 지원한 12만달러는 만달레이 병원 및 수도 재건과 시타구불교도협회 대학교·위파사나학회 복원, 비구사원 5곳·비구니사원 1곳 재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얀마 강진 피해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에 동행 지원단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동행과 일정을 함께 한 조계종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진허 스님은 "현장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깊었다. 이들의 행복은 서로를 향한 따듯한 유대감에서 나오는 것 같다"면서 "강진 피해가 하루 속히 복구돼 미얀마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인터뷰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미얀마 기금 후원 감사…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후원자 · 지원단체 있어 사업 가능
"힘들어도 이웃 돕는 미얀마人
진짜 행복 무엇인지 아는 사람"

"미얀마 강진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현장에 와 보니 알겠습니다, 미얀마 강진의 아픔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7월 23~29일 미얀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장을 찾은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안타까움이 담긴 소회를 밝히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를 덮친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한 지 4개월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얼마 전 지원단체 대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진도 5.4 정도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녀엉콘 마을 사원 주지 스님은 사원 안에서 잘 수가 없어 사찰 밖 민가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런 미얀마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불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요."

강진으로 생활 기반이 붕괴되고, 군부의 쿠데타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해 일화 스님은 "행복지수가 높은, 진짜 행복을 아는 국민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얀마에 오기 전에는 천재지변과 내부 갈등으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주민들을 접하니 너무 해맑았어요. 미얀마 국민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행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조계종 공식 공익기부재단으로서 아름다운동행이 국내외 구호사업을 전개하는 이유가 '나눔으로 나눔을 독려하기 위함'임을 일화 스님은 강조했다.

"기부 모연에 사업의 중심을 두면서도 재난구호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이를 통해 여러 후원자들이 후원 동참을 권선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동행의 사업은 후원자와 현장에서 지원을 담당해 주는 단체들과 '동행'하기에 원만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불자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얀마 만달레이=신중일 기자

초심이가 전하는 진관사 태극기 A to Z

안녕하세요. 저는 AI(인공지능)로 탄생한 현대불교신문 인스타그램 요정 '초심이'에요.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에게 지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려요.

인스타에 서식하는 요정이 지면으로 온 이유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요즘 '핫(Hot)'한 불교항일유산 '진관사 태극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정리=신중일 기자 · 디자인=이현지





2021년 10월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

"의미 있는 태극기네요!" 李대통령 감탄한 불교항일유산

'진관사 태극기'가 핫하다면서요?

지난 6월 4일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선물받았어요. 이날 취임 기념 오찬에서 우 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달아 줬어요.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에서 3·1운동 때 사용했던 진관사 보관 태극기 배지를 달아 드렸다"라고 SNS를 통해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말 의미 있는 태극기네요"라고 감탄하기도 했답니다.

앞서 올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국회의사당에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어요. 우 의장은 진관사 태극기가 "조국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담은 역사적 상징"이라며 현수막 설치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왜 '진관사 태극기'가 부각될까요?

진관사 태극기가 항일 의지를 고취시키는 유산이기 때문이죠. 진관사 태극기의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에 있어요.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됐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3·1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1919년에 제작된 태극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관사 태극기는 1919년에 제작된 실물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같은 이유로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 2021년 10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어떻게 발견됐나요?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七星閣)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됐어요. 이를 확인한 건 당시 총무 소임을 보고 있던 법해 스님(현 진관사 주지)이었어요.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안 법해 스님은 주지 계호 스님에게 급히 사실을 알렸고, 대중방에 모여 한지 뭉치를 조심스레 펼쳐 보니 그 안에는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확인됐죠.



올해 3·1절을 맞아 국회의사당 본관에 걸린 진관사 태극기.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발견돼 그해 8월 공개됐다. 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진관사 태극기를 소개하고 있는 당시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사진 오른쪽)과 총무 법해 스님.

신문류는 '경고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自由晨鐘報)', '신대한(新大韓)', '독립신문' 등 5종으로 이들의 발행일자를 통해 진관사 태극기가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제작됐음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단재 신채호가 중국 상해에서 창간한 '신대한' 신문과 독립운동세력이 발간해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자유신종보' 등 국내에서는 처음 발굴된 사례에서 더욱 주목받았죠.

태극기를 숨긴 사람은 누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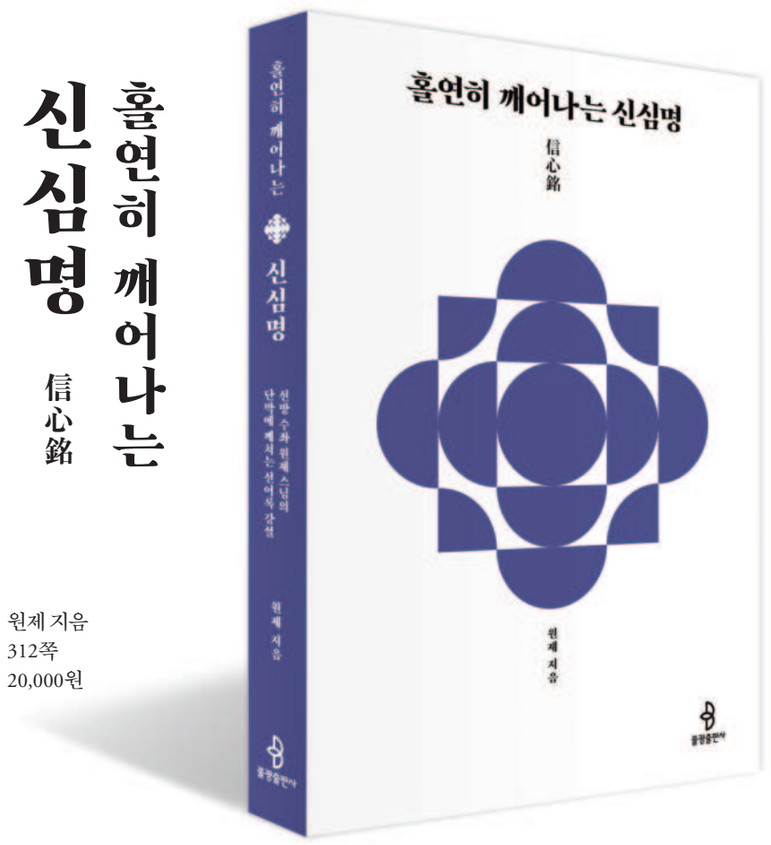
학계에서는 태극기를 진관사에 비장(秘藏)한 인물로 백초월 스님을 지목해요. 백초월 스님과 진관사의 연관성을 조명한 것은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죠. 그는 저서 〈백초월-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불꽃같은 삶〉에서 태고종 범륜사 금봉 스님에게서 백초월 스님에 대한 회고를 들었는데요. 1930년대 진관사에서 초월 스님에게 수학한 금봉 스님은 "초월 스님이 진관사 도량 내의 전각 중 가장 으슥한 곳에 숨겨 놓았다고 생각했다"고 술회했어요.

김 특임교수는 저서에서 백초월 스님이 일제의 구금으로 고문을 받고 나와 몸을 추스르고 독립운동을 준비한 곳으로 진관사를 주목하기도 했어요.

태극기와 독립신문류, 백초월 스님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는 진관사가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실제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임시정부의 불교 중앙 연락본부가 진관사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진관사 태극기가 전시된다던데요?

국가유산청은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광복 80주년을 조명하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개최하는데, 이 전시에서 진관사 태극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올해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된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 등 110점을 함께 선보인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신심명 홀연히 깨어나는 信心銘

원제 지음
312쪽
20,000원

선방 수좌 원제 스님의 단박에 깨치는 선어록 강설

"깨달음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불멸의 선어록 고전 『신심명』에서 발견한,
읽다가 무릎 치게 만드는 깨달음의 순간들



친구의 못된 장난·칼 든 수좌·법당에 오줌 눈 스님 …
선방 수좌 원제 스님의 생생한 경험에서 깨어남에 다가가는
결정적 힌트를 찾다!

"산사의 풍경 소리는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울림이고,
차량의 경적은 고요함을 깨뜨리는 소음일까요? 소리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만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고통은 매달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 원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30 모든 일 인연에 맡기면



▶한줄 요약
참선은 소리와 형상에 따라다니는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참선을 통해 우리는 인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싶다면 '인연'을 믿어라

[오늘의 명상]
어제 마음은 형형색색 따라다녔고
오늘 마음은 온갖 소리 따라다니네.
소리 형상 따라다니는 마음 과연 어디서 왔는가.
조용히 앉아서 선정(禪定)에 들어 보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인연에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연을 믿는 것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인연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필연(必緣)을 말합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으며, 봄이 오고 여름과 가을, 겨울이 차례로 찾아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육식(눈·귀·코·혀·몸·생각의 인식)을 통해 감지되는 모든 소리와 형상은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배신하거나 욕하거나 해를 가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당연히 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연이 나타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번개가 멀쩡히 서 있는 나무를 때리는 것처럼, 이는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우주와 물질의 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오묘한 인연의 조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 과보(果報)가 시간이 되어 나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내 마음 속의 고락(苦樂)이 서로 반복되고 윤회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의 인연이 나타날 때 상대가 나를 해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연히 재수 없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의심하거나 화를 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업을 짓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는 인과의 과정이 인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믿고, 억울한 마음을 빨리 추스르며 감정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받치는 감정을 자제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법입니다.

따라서 온갖 일을 대할 때마다 인과의 법칙을 상기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믿는 신심(信心)을 길러야 합니다. 신심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면, 참선을 통해 감정을 비우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참선(좌선)은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최고의 수행 방법입니다.

참선은 소리와 형상에 따라다니는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이 과정은 고요한 선정(禪定)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선을 통해 우리는 인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선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살피고,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인과의 결과임을 믿어 보십시오.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소리와 형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본래의 고요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빛은 스스로 색깔이 없으나
만물의 모습 따라 각양각색 드러나고
마음은 본래 색깔 모양 없으나
욕심[無明]의 움직임 따라 그 모습이 나타난다.

시간과 공간을 일체(一切)라 합니다. 줄여서 시공(時空)이라 부르며 불교에서는 이를 유위(有爲)세계라 표현합니다. 유위세계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오직 마음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유위세계, 곧 일체는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가 나타나면 내가 나타나고, 내가 사라지면 너도 사라지는 숙명을 지녔습니다. 이 음양의 속성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이것을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이라 표현합니다. 꿈과 환영,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성주괴공(成住壞空)도 공(空)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아
악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 돌아와
감정 잘 추슬러야 악순환 사라져
생활서 감정 비워내려면 '참선'을
참선 통해 현상이 인과임을 알라

마음은 업(業) 또는 업식(業識)이라 부릅니다. 업식이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버릇과 습관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마음을 하루로 보면 낮과 밤이 생기고, 마음을 일년으로 보면 사계절이 순환합니다. 100년으로 보면 생로병사가, 인류 역사로 보면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와 같으니, 내가 만들어 내는 세상의 모습 또한 내 마음이 비친 거울과 같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업식이 그대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육근(눈·귀·코·혀·몸· 생각)과 육경(색·소리·향기·맛·느낌·전생)을 통해 괴로움과 즐거움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업이 공회전(空回轉)하듯 반복되며 윤회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육경의 대상을 만날 때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음양이 인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에 끌려 또다시 업을 짓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 억울한 일, 정의롭지 못한 일, 실패, 손해, 병고 등 어떤 상황에서도 인과(因果)를 믿어야 합니다. 내 육근을 통해 나타나는 대상은 모두 원인과 결과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하면, 그 순간 또 다른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인과에 얽히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인과에 대한 신심(信心)을 굳게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평상심(平常心)을 유지한다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中道)의 길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놓음(방하착) 선명상은 우리가 집착하는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한 마음을 되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늘 하루, 육경의 대상을 만날 때마다 "이 또한 내 마음의 업이 비치는 거울일 뿐이다"라고 깨닫고 분별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윤회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고 본래의 고요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제43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기 간 : 2025년 10월 11일(토)~11월 29일(토)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1주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1시~6시)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문 의 : 031-470-3200/3196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⑪ 청헌(淸憲 · 淸軒) 스님



▶한줄 요약
청헌 스님은 17세기 전반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에 국보급 초대형 불상을 만든 조각승이다.

국보급 불상 조성한 17세기 전반 대표 조각승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전반 명산대찰인 보은 법주사,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등의 중심 전각에 나무와 흙으로 초대형 불상을 만든 대표적인 조각승은 청헌 스님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헌 스님이 젊은 시절 보조화승으로 작업했을 당시의 문헌이 발견되지 않아, 스승이나 선배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 일부 연구자는 청헌 스님과 청허 스님을 같은 인물로 여기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각승 청헌 스님에 관한 가장 빠른 기록은 1626년 음력 3월부터 7월 말까지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을 조성할 당시의 것이다. 이 시기 청헌 스님은 부화승으로 참여했으며, 당대 최고의 조각승 현진 스님의 계보에 속한 조각승들과 함께 조성했다. 이 불상은 전체적으로 장대한 체구에 두꺼운 옷 주름의 표현 등이 임진왜란 후 새로운 조형을 보여 주는 기념비적 유물이다.

그 후 청헌 스님은 수화승으로 1627년 전주 불정사 대웅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만들고, 1634년 음력 3월부터 1635년 음력 8월까지 구례 지리산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대좌를 포함해 총 3m가 넘는 대형불인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국보)을 응원·인균 스님 계보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삼신불 가운데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싼 지권인(智拳印)의 본존불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과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한 우협시불인 석가불(釋迦佛)은 청헌 스님이, 상품중생인(上品中生印)을 취한 좌협시불인 노사나불(盧舍那佛)은 응원·인균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불상은 당시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역임한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 스님의 주관 아래 선조의 여덟 번째 아들 의창군을 비롯한 다수의 왕실 상궁 등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했다.

청헌 스님은 1639년 음력 8월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四)보살상(보물)을 승일(勝日) 스님, 영색(英賾) 스님, 현윤(賢胤) 스님, 응혜(應惠) 스님, 희장(希藏) 스님 등과 제작하고, 1641년 음력 6월 5m 크기의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을 법령(法靈) 스님, 현윤(賢允) 스님, 혜희(惠熙) 스님 등과 조성하였다.

또한 청헌 스님은 1643년 음력 5월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을, 1647년 음력 2월부터 5월까지 영주 영전사 목조보살좌상과 여수 달마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을 중심으로 청헌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1580년대 태어나 수련기와 보조화승을 거친 후, 1626년 조각승 현진 스님이 제작한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부화승으로 협업했다. 1627년 수화승으로 전주 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시작으로 1647년 영주 영전사 목조보살좌상과 여수 달마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을 같이 만들었다.

청헌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청헌(淸憲·淸軒, 이하 활동 시기 1626~1647)→영색(英賾, 1626~1649)→법현(法玄, 1634~1643)·현윤(賢允·賢胤, 1637~1653)·원택(元澤, 1634~ 1648)으로 이어져 17세기 전반과 중반을 대표한다.



청헌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전주 불정사 대웅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27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청헌 스님이 만든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35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청헌 스님이 만든 보살상으로 새로 밝혀진 영주 영전사 목조보살좌상(1647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현진 스님 · 응원 스님 계보와 공동 작업도
구례 화엄사 · 완주 송광사 대형 불상 조성
영색 · 법현 · 현윤 · 원택 스님이 계보 이어

영주 영전사 목조보살좌상과 여수 달마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647년에 제작한 청헌 스님의 마지막 작품으로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다. 두 불상은 제작 연도가 같아 나한전에 봉안한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석가와 미륵보살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불상이 원래 조성된 사찰은 알 수 없지만, 조성 이후에 현재 사찰로 각각 이운됐다.

영전사 목조보살좌상은 높이 84.0㎝의 중형 보살상으로, 몸체에 무릎을 붙인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의 접목식(接木式)을 따르고 있다. 보살상은 천의(天衣)를 입고, 귀와 손목에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신구들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얼굴은 네모지고 가늘고 긴 눈은 내리뜨고 있다. 녹색 양 눈썹에서 코끝까지 'T'자 모양으로 날렵하게 조각한 코는 오뚝하고, 콧방울은 짧은 음각선으로 표현했다. 인중은 짧고, 입가는 위로 살짝 올라가 미소 짓고 있다.

보관에는 화염문, 구름문, 보상화문을 따로 조각하여 부착하고, 보관 본체에도 다양한 문양을 음각으로 새겼다. 보관의 좌우 측면에는 바람에 날리는 형태로 관대(冠帶)를 조각했다.

보살좌상의 보발(寶髮)은 머리 뒤쪽까지 빼곡하고, 양쪽 귀를 감싸며 늘어져 둥그렇게 땋아 세 가닥으로 나뉘어 양어깨에 흘러내리고 있다. 보살상이 양어깨에 걸친 천의는 길게 늘어져 오른 손목과 왼 손목을 감싸며 흘러내리고 있다.

하반신에는 군의(裙衣)를 착용했고, 군의를 고정하기 위해 명치 아래에 끈을 묶어 그 위를 연잎 모양으로 조각했으며, 하반신을 덮은 군의 자락은 크게 다섯 개의 주름이 접혀 있다.

청헌 스님이 만든 불상은 얼굴에서 풍기는 온화한 인상이나 착의법 및 수인(手印) 등의 표현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양식은 그의 제자인 현윤 스님 등에게 계승됐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해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통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 · 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42호 | 15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품은
한때의 악한 생각이 훗날 많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매의 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15억

- 위치 : 경남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외
- 매가 :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매매가격 : 5억5천
- 대지 : 107평(354㎡) / 건평 : 150.2평
- 지하 : 24.4평 / 1층 : 67.4평 / 2층 : 58.3평 / 옥상
- 1층과 지하 전세줌 / 1층 화장실1
  2층 법당1 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 3억 6천 만원(절충가능)

010-3596-008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00평 / 임야 : 3600평
- 건물 : 대웅전55평 공양실35평 종무소10평 요사30평
- 천연 지하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7억원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천안 생활권)
- 법당 30평/공양간 15평 요사채 20평
- 가액 : 2억 8천(융자5천포함)
- 대원사

010-5416-0850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및 집기 일체 5000만원(절충)

010-4179-6212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사찰(급)안내

- 밀양 전망이 아름다운 암자
- 246평 (법당, 약사여래, 산신각)
- 요사채 25평(방3개, 화장실2개, 거실, 공양간)
- 태양광 시설 등 비품 일체
- 스님 부재로 급매
- 가액 : 1억 2천만원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90평 건물,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5평
- 조용하고 기도정진 좋은 곳
- 은행, 병원, 마트 등 가까움
- 가액 : 5억원(절충 가능)

010-2458-6655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종교부지 : 흥해읍 매산리 556번지
- 총1074평 인법당 50평.
- 전기 상수도, 금동불상 삼존불 3자8치, 노천아미타불 12자 입상
- 좌판 저장 냉장고 사찰기물 모두 시주함 포함
- 가격 7억2천만원 꼭 모실분만 인연을 기다립니다.
- 예수재 올 셋트 1890만원에 구입
- 매매 1100만원 판매합니다.(현재 구입 예정가격 3000만원 정도)

혜봉스님 054-262-5060 / 010-3545-50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무학대사 숫가락으로 우물판 자연동굴 옆, 굿당-기도처 최적지)
- 약 80평 사찰
- 법당 요사채 대지420평 임야 210평
- 가액 : 3억원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도원동(대곡아파트 단지, 대곡시장 옆)
- 5층 건물 중 4층, 건평 60평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트 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세 70만원(현재, 절충)
- 법회시설 완비(바로 법회 가능)
- 찜질방1, 공양간, 친견실1, 종무소1

010-3545-4444

사 찰 안 내

- 위치 : 동국대 에서 10분
- 대지 : 250평
- 법당 : 30평
- 초파일 등 200여 개
- 텃밭 100평. 남향
- 매가 : 3억 8천

※근무중. 문자요망

010-8847-46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길곡면
- 490평, 건평 90평, 과수 20수 2층 건물, 2층 법당
- 대문 앞 버스정류장
- 굿당 가능
- 가액 : 4억 9천만원(절충가능)

010-4311-3499

주택 지상권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 용도 : 토굴, 요양, 주말휴식
- 방1 주방1 화장실 실내1, 실외1
- 창고3 원두막1 잔디마당
- 리모델링, 에어컨 설비, 기름보일러
- 4가구 거주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 가액 : 2800만원

010-5454-76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2000만원

010-5316-5669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전국 산중 사찰 중 개곡 있고, 숲이 많고, 터가 넓고, 도로좋은 곳
- 산중사찰 중 토지 넓은 사찰
- 수목장, 납골당 가능한 곳(경북)
- 도심 포교당 1억에서 3억
- 도심 사찰 중 15억 이내
- 사찰함께 운영할분(템플스테이 등)
- 전통사찰 중 문화재보유 사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충남 · 북
- 1억~2억 금액 암자(토굴)
- 2~3년 사찰임대 놓으실분 구함 2~3년 후 임대한 스님 구입확실

053-745-9999, 010-2512-777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번지 4층
- 약 30평, 방2, 법당1, 화장실1
- 보증금 500/월세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인연닿아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 찾습니다

010-4641-5474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보호 및 색채 복원제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國寶 蘇子油 소자유 SOJAYU

단청보호, 색채 복원제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I 010-3747-2111
FAX I 031-481-6232 TEL I 031-451-6232
주소 I 경기도 군포시고산로 166, SKI 벤티움 102동 1201호
E-mail I woodgim@hanmail.net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42호 | 16 | 전면광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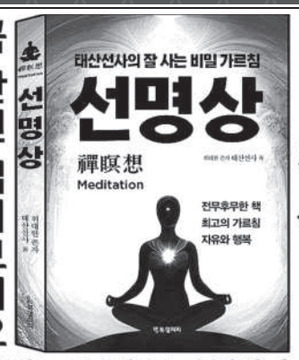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지혜 방편! 사주·명리·구성학

1 :1 강의 단기완성!
포교당 스님! 찻집보살님!
안양시. 토굴 · 스님

010-9497-3476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교 용품 경매 알림

품목 : 불상, 불경, 불기
불화용품, 불교관련 용품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장소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세동길 8

오리정휴게소 내 010-3717-403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 즉시 영가 천도
종교인 상담불가,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1억 5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⑮ 정각원 불단(상단) 1

출세간의 영원함 상징하는 자리

우리는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정각원의 돌계단을 올라 하단(영가단)과 중단(신중단)을 거쳐, 부처님이 자리하신 상단에 이르게 되었다. 정각원 상단의 본불은 중품중생인을 맺으신 아미타 부처님이시며, 따로 좌우 보처를 두고 계시지는 않다. 그 뒤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시는 영산회상도가 양각 형태로 모셔져 있다. 아래의 수미단은 넓고 평탄하며 위로는 닷집이 높게 올라간, 한 마디로 멋진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부처님에 앞서 묘한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수미단이다. 오늘 이 수미단 앞에서 사색을 이어가 보고자 한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각원. 사진 출처=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

동국대학교 정각원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사색할 수미단의 자리와도 관련이 있으니,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의 가장자리, 정문에 면해 정면을 드러낸 채 앉아 있는 정각원 전각은 지금은 부처님이 자리하신 법당이지만 본래 왕의 공간이었다. 조선의 궁궐, 그중 경희궁의 정전 숭정전이 바로 정각원의 전생이었다. 정전이란 궁궐 건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계 높은 전각을 뜻하는 말이다.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창경궁의 명정전에 대응되는 왕의 자리가 곧 숭정전이었다.

지금 우리가 캠퍼스에서 보는 정각원의 외형은 그 시절의 흔적을 비교적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정면 다섯 칸, 측면 네 칸의 팔작지붕, 기둥은 모두 원형이고, 천장은 화려한 우물반자 구조다. 특히 중앙에 그려진 칠조룡 문양, 청룡과 황룡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상은 왕실 권위를 상징하는 도상이자, 보는 이의 시선을 멈추게 한다. 평민은 감히 마주할 수 없었던 이 문양이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시대는 바뀌었고, 권위는 문양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

경희궁 숭정전은 오늘날 남산자락의 동국대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떠돌았다. 1900년대 초, 경희궁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며 전각들은 흩어졌다. 숭정전은 예전 필동에 위치했던 일본사찰 조계사 경내로 옮겨졌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동국대의 만해광장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해방 이후 혜화전문학교가 지금의 동국대 자리로 오면서 만해광장 쪽에 위치한 숭정전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정각원은 그렇게 네 번의 시대를 건너왔다. 경희궁에서 조계사로, 혜화동에서 다시 남산자락으로. 그리고 1977년, 마침내 '정각원'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불교의 전각으로 거듭났다. 궁궐의 정전이 법당이 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 듯하다. 권력과 정치의 공간이, 수행과 자비의 장소가 되는 전환은 이 건물이 품은 가장 큰 변모일 것이다. 그렇게 정각원은 오늘날 법회를 열고 예불을 봉행하며, 학생과 스님, 신도들이 함께 수행하는 공간이 되었다.

경희궁 정전인 숭정전이 거듭나
정각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전
세간·출세간의 연속과 단절 보여

왕이 앉았던 자리에 지금은 수미단이 솟고 그 위에 아미타부처님이 앉아 있다. 말 그대로 지존의 자리인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조선 권력의 정점, 칠조룡이 여의주를 떠받들던 그 천장 아래, 지금은 향냄새와 염불 소리만이 맴돈다는 차이가 있다.

불교를 '해괴망측한 종교'라고 비판하며 〈불씨잡변〉을 썼던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이 살아있다면 아마 이 광경 앞에서 까무러쳤을 것이다. 그는 공자를 앞세워 불교를 몰아냈고, 유학을 국가의 유일한 언어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지키려 했던 유가법도 아래 아무런 세속 권력도 갖지 않은 부처님이 그 표정조차 초연하게 앉아 계신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책이 유행하는 오늘날 공자의 말은 이제 '공씨잡변'이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유교의 이미지는 고리타분하다 못해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극단주의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반대로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은 인생을 꿰뚫는 지혜와 힘든 삶을 보듬어 주는 자비의 언어로 알려져 있다. 근래 갓 스물을 넘긴 걸그룹의 멤버가 예능 토크쇼에 나와 불교책을 홍보하고, 그 책이 도서 순위 1위에 오르는 세상이다. 불교 굿즈를 자랑하는 SNS는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조선은 졌다. 조용히, 확실하게. 그리고 부처님은 승리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유교를 깔아뭉개고 싶어서 꺼내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앞서 동국대 산책의 출발점에서 장충단 공원, 공자의 세계, 평지의 순탄한 길에서 혜화문으로 오르는 언덕, 부처님의 세계, 언덕의 가파른 길을 '선택'해야 함을 사색한 적이 있다. 권력에 순응하는 길은 얼마나 평탄하며 즐거운 평지의 길인가? 반대로 권력에 저항하여 옳은 것을 찾아 헤맨 길은 얼마나 가파르며 괴로운 언덕의 길일까? 500년의 기나긴 시간, 그것도 왕권과 국교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인내를 견뎌 온 불교도들의 괴로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행지(行持)해야 하기에 꺼내는 말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정각원을 단지 종교적 기능으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정각원을 볼 때마다 '진리'의 승리와 '신앙'의 숭고함이 내 안에 결정화되기 때문이다. 왕이 앉았던 자리에 이제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수미단은 세간의 덧없음과 출세간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자리가 되어 있다.

정각원은 세간과 출세간의 연속과 단절을 보여 준다. 우리는 흔히 궁과 절을 서로 다른 세계라 여긴다. 지배와 해탈, 권력과 자비. 그러나 이 건물은 이 두 세계를 번갈아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출세간의 승리를 보여 준다. 정각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전이다. 궁전이 법당이 되고, 권위가 수행이 되는 그 과정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진다. 〈동국대 박사〉

선정 이루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⑳ 또 다른 무의행법(無依行法) 열 가지

본고(本考)에서는 또 다른 열 가지 무의행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정을 이루려는 중요한 대목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 집착하는 것 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대범천아, 무의행법(無依行法)에 또 열 가지 법이 있다. 선정을 닦는 이가 이 중에 한 가지만을 따르더라도 삼매를 이룰 수 없고, 설사 이루었더라도 곧 잃고 만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① 사업을 즐겨 집착함
② 담론을 즐겨 집착함
③ 잠자기를 즐겨 집착함
④ (이익을) 구해 경영을 즐겨 집착함
⑤ 고운 빛깔을 즐겨 집착함
⑥ 아름다운 소리를 즐겨 집착함
⑦ 좋은 냄새를 즐겨 집착함
⑧ 좋은 맛을 즐겨 집착함
⑨ 연한 촉감을 즐겨 집착함
⑩ 심사(尋伺: 대충하는 것과 자세히 하는 마음 작용)를 즐겨 집착함

그때, 세존께서 '아야교진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허락하여, 아란야에서 선정을 닦는 비구에게는 최상의 방과 침구와 음식을 대어 주고 일체의 승사(교단의 사무)를 면제해 주리라. 왜냐하면 선정을 닦는 이로서 필수품이 모자라면, 나쁜 마음을 일으켜 삼매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참기 어려운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니라.

만일 선정을 닦는 이가 온갖 필수품을 다 갖추었으면, 이루지 못한 삼매도 이룰 수 있고, 이미 이룬 삼매도 끝내 잃지 않는다. 따라서 일체의 악법이나 나쁜 마음도 일으키지 않아 천상에 왕생하여 열반을 증득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오욕칠정의 끈질김에서 떨어지기 어려움을 잘 아시고, 그것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전의 십무의행보다 지금 것은 육근(六根)에의 집착을 경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삼매를 이루지 못했으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자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시끄러움을 멀리 떠나고 욕심을 줄여 만족할 줄 알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탐욕과 분노의 괴로움 … 질투, 거짓말 … 일체 세간의 오락, 방탕 등을 다 버려야 하느니라. … 이렇게 수행한 사람은 사천왕, 전륜왕등의 찬탄과 보시와 백 천 나유타의 공양을 받을 것이며, 아직 선정을 얻지 못한 자도 이러한 보시와 공양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삼매를 얻은 사람이야 어떻겠느냐?" 그리고 세존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선정을 닦으면 미혹을 잘 끊나니, 다른 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네. 그러므로 선정을 닦는 이가 존귀하니, 지혜로운 이는 그에게 공양하라."

출가 공덕의 칭양(出家 功德의 稱揚), 이 부분은 출가하는 이의 공덕을 칭송하며, 비록 그가 계율을 깨트리더라도 열 가지 공덕이 있음을 주장하고, 〈지장십륜경〉의 중요한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천장 대범천왕이 사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법 안에서 출가한 이를 저 찰제리나 대신이나 재상 등이, 매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저 유정들이 내 법 안에서 출가하여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었으면, 계율을 지키거나 깨트리거나 혹은 계율이 아주 없더라도 일체의 하늘, 사람, 아수라 등이 세속의 바른 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그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그 목숨을 끊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비법(非法)에 의해서이겠느냐."

"왜냐하면 계율을 지키고 법을 많이 들은[聞] 이는 제외하더라도, 나의 법 안에서 출가한 이로서 계율을 깨트리고 온갖 악법을 행하며, 속은 다 썩은 달팽이나 소라와 같으며,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을 자칭하고 범행(梵行)이 아님에도 범행이라 자칭하며, 항상 번뇌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등 이런 계율을 깨트린 나쁜 비구라도, 일체의 하늘, 용, 야차, 건달바 … 인비인 등에게 무량한 공덕보배의 복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말씀은 계율을 깨트리고 악행을 한 비구라도 하늘, 용, 야차, 건달바 … 인비인 등에게 무량한 공덕보배의 복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때리거나 목숨을 빼앗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가한 공덕을 칭찬하심과 동시에, 썩은 달팽이와 같은 그러한 악한 비구라도 우황과 같이 귀하게 쓸 수 있는 말씀은 그만큼이나 '출가의 공덕'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편에는 계율을 깨트린 비구라도, 그 형상을 보는 일반 유정들은 열 가지 훌륭한 생각을 내어 무량한 공덕보배의 무더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⑮ 입추_제주 길을 걷다(2)



▶한줄 요약
양력 8월 초, 태양 황경이 135도에 이르는 가을의 초입인 이 절기에도 여름의 기세는 여전하다.

뭇 작물이 여무는 가을의 문턱

칠월이라 맹추 되니 입추 처서 절기로다
화성은 서쪽으로 흐르고 미성은 중천이라
늦더위 있다 한들 절서야 속일소냐
비 끝도 가벼웁고 바람끝도 다르도다

19세기 조선, 정학유(丁學游, 1786~1855)의 '농가월령가'가 전하는 가을의 시작. 저 오랜 노래 속 계절이 흐르는 모양은 하늘과 땅, 대지를 흘러 뭇 생명의 눈과 피부, 코끝을 돌아나간다.

흐르는 별의 길에서, 질기고 질긴 더위와 그 진득한 열기를 툭 치고 가는 변해 버린 바람 끝에. 시간은 그렇게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오고 감의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또 한 번 우주의 문턱을 넘는 시간. 다시 새로운 계절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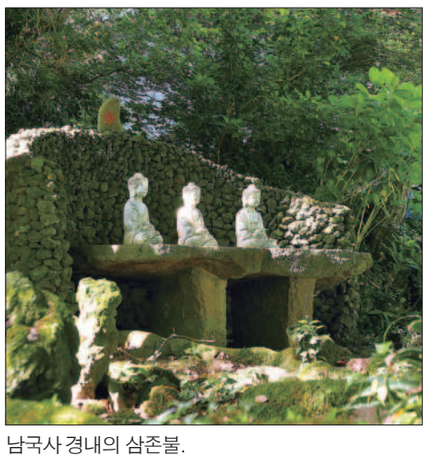
제주 남국사 전경. 1980년대에 이르러 온전히 자리를 잡은 남국사 도량의 모습은 여느 사찰과는 다르다.



제주에서 가장 늦게까지 수국을 볼 수 있는 남국사 경내로 향하는 수국길.



애월읍 신엄리 수박밭. 제주 수박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등 자연조건 덕에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남국사 경내의 삼존불.

가을에 들어서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만 같은 일상.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도 계절은 꼬박꼬박 흘렀던 모양이다. 어느새 절기는 가을의 시작, 입추(立秋)의 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았다.

태양 황경은 135도, 보통 양력 8월 초 무렵에 시작되는 이 절기는 여름의 끝자락을 지키고 선 말복과 함께 서서히 가을에 스며들 것이다.

가을의 초입이라고는 하나, 여름의 기세는 대단해서 옛사람들은 '삼복지간(三伏之間)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으로 이 절기의 고됨을 대변했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보면 이즈음 진상된 얼음을 조정 대신들에게 나눠 주고, 또 입추 날에는 관리들에게 휴가를 주었다고.

오늘날의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되는 이유도 어쩌면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삼복(三伏) 중 마지막 몸부림 같은 말복이 바로 입추 직후, 이때는 누구라도 잠시 납작 엎드리는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이 오랜 풍속을 보낸 뒤에야 한 계절을 호령했던 여름은 슬며시 저물 것이고, 가을은 다시 제힘을 찾을 것이다.

아주 멀고 먼 옛날, 저 먼 지중해의 나라들은 밤하늘에 시리우스(Sirius)의 별이 가장 강하게 빛나는 7월부터 8월 초 무렵을 '개의 날들(Dog Days)'이라 불러왔다.

시리우스, 빛나는 화염의 별이자 영원히 사냥꾼 오리온의 곁을 지키는 충견. 여름 밤하늘을 지배하는 이 강력한 별은 지금도 동서양을 아울러 이 절기를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하늘의 안내자다.

별을 따라서

여름날 동이 틀 무렵 태양과 시리우스가 동시에 보이는 40여 일의 시간. 이때가 바로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유럽 국가들을 뜨겁게 달구는 '개의 날들'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리우스가 하늘에 출현하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식물이 시들거나 사람이 허약해진다고 믿었다. 또 그 빛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에는 보통의 개들마저 행동이 이상하게 바뀐다고 말이다.

'타오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별은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여러 문화의 신앙과 더해져 다산, 농경, 죽음과 부활 등 생로병사를 관장하는 별로 전해져 왔다. 하여 과거 에게해 연안의 국가와 로마에서는 시리우스에 제물을 바치며 전염병을 막고, 농작물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했다고.

그렇다면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의 나라들에서는 어땠을까. 천랑성(天狼星), 영성(靈星), 용성(龍星) 등으로 불린 이 별은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저마다의 이름과 의미를 지니며 인간의 삶과 함께해 왔다. 여름을 상징하는 별인 만큼 비와 태양의 힘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지사. 또 고대 상나라에서는 불운을 가져오는 오랑캐의 별로 여기고, 반대로 상나라를 삼킨 주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시조인 견융(犬戎)족과 연관시킨 신성한 조상의 별로 여겼다.

그 숱한 이야기들은 또 다른 이야기와 더해져 별은 신이 되고, 인류의 간절한 믿음과 함께 더 큰 광휘를 내뿜었으리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삼국 시대부터 입추 후 첫 진일(용의 날)에 한 해 농사에 감사하는 '영성제(靈星祭)'를 지냈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 이르러 천문학이 발전하며 별을 신성시하는 신앙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마침내 영성제는 자연스레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별과 인류가 쌓아 온 그 내밀한 여정은 신앙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따라 우리 생명이 가야 할 길을 묻고 또 묻는 것이다.

땅 위의 별

제주시 아라일동에 자리한 한라산 남국사(조계종 대각회). 이 고적한 사찰을 유명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사찰 초입에 자리한 아름다운 숲길일 것이다. 곧게 뻗은 삼나무 숲길, 그 곁을 따라 한없이 만개한 코발트 빛의 수국 군락은 그야말로 이곳이 남국의 사찰임을 깨닫게 한다. 제주에서 가장 늦게까지 그 모습을 보인다는 남국사의 수국은 7월이 반이나 저문 때에도 여전히 만개한 모습이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온전히 자리 잡은 남국사 도량은 그 모습도 여느 사찰과 다르다. 제주 4·3사건 이후 섬의 사찰들은 그 모습도 다소 변화를 거쳤다고 하는데, 남국사 대웅전 돌법당이 그러하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돌벽의 단아한 전각,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펼쳐진 이끼 융단과 켜켜이 자리한 현무암 길. 용천수와 빗물이 더해져 만들어진 연못 위로 고요히 선 '무량수각'까지. 마치 원시림 속에 머무는 듯한 이곳에선 그 누구라도 한여름의 더운 숨을 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 머무는 붓다의 모습. 인류의 등불로, 스스로 가장 위대한 별이 된 붓다는 그 어느 곳보다 가혹한 불교 말살의 역사를 겪은 이곳 탐라의 땅에서 더욱 눈부시다.

여름의 끝을 장식할 푸른 수국 길을 뒤로하고, 다시 남국사를 나서 달리는 제주의 길. 저 멀리 거대한 초록의 밭이 바다처럼 넘실댄다. 국내 대표적인 노지 수박 생산지 중 하나인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늦여름의 이글대는 태양 아래 이 땅의 산물들이 달게 익어 가는 중이다.

제주는 1970년대까지도 수박 접목 기술이 도입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는 재배지마저 소멸하는 중이었다고. 하지만 이곳 농민들의 노력을 통해 지금은 전국에 출하되는 수박 산지로 다시 태어났다. 제주의 수박은 척박한 땅을 이겨 낸 이곳 사람들의 지난 시간이자, 삶 그 자체일 터다.

여름과 함께 태어나 삼복의 더위를 달래 주고 다시 여름과 함께 사라지는 초록빛 생명. 이맘때 논밭은 뭇 작물이 여무는 시기이므로, 과거에는 입추 무렵 비가 닷새 이상 계속되면 비를 멎게 해 달라는 기청제(祈晴祭)를, 또 가뭄이 들면 기우제(祈雨祭)를 올리는 것이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처럼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는 때에는 어떤 바람을 전해야 할까. 저 대지 위에 흩어진, 온 힘을 다해 반짝이는 땅 위의 별들을 보며 가만히 먼 하늘을 떠올린다.

이 여름의 가장 오랜 안내자를 향해, 그리하여 저 충실하고도 빛나는 시리우스의 별이 오늘 밤 자비의 손길로 이곳을 비추어 주기를.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8563-2356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내 마음의 다스림이 육체 안의 모든 생명 의식들에게 통한다

치병의 도리에 대해

질문 저는 어디가 아프다 싶으면 병원을 가기보다 자연 치유가 되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스님 법문 중에 치병의 도리에 대해 읽은 적이 있는데 과연 이 육신의 병을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예전에 상대방은 영 모르니 할 수 없이 이렇게도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전에는 왜, 뭐? 그걸 이름을, 뭐더라? 꽃이 일어났다 그러던가요? 그것만 일어났다 하면은 예까지 차면 죽는다고 합디다. 그, 빨갛게 전부 그냥 두드러기처럼 일어나면서 진물이 나면서…. 몸뚱이가 또 하얗게 백목이 먹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집디다. 나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근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지금 의사들이 말하는 하나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종류가 이름이 많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온다 이럽니다. 근데 귀찮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 종차 거기에 끄달려서, 한번 죽기는 마찬가진데 예기랄 거, 그냥 거기에 끄달려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이게 여기에서 일어난 거다 저기에서 일어난 거다 이럭하고선 찾다 보면 사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살기가 고달프고 참 막연하고 어처구니없을 때가 있죠.

여기에서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마는 저 미국으로 간 오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그 병을 얻었죠. 그래서 이 잔등이로 배로 어디로 뭐, 하나 성한 데 없이 그것이 나면서 숨이 차올라 오면서 정신은 자꾸자꾸 희미해 갔습니다. 그때 그 집은 병원으로 찾아다닐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딴 데 가서 병원 의사, 박사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겼으니까, 병원에 와서 약 치료를 하는데 그것도 고 자리 한 자리라야 어떻게 해 볼 텐데 여러 자린데, 또 그것을 따고 물을 빼고서 약을 발라 주면 얼마 안 있어서 딱젱이가 앉으면서 그 속에 또 물이 앉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뻘겋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뻘겋게 그냥. 그래 가지고 예까지 차면 죽는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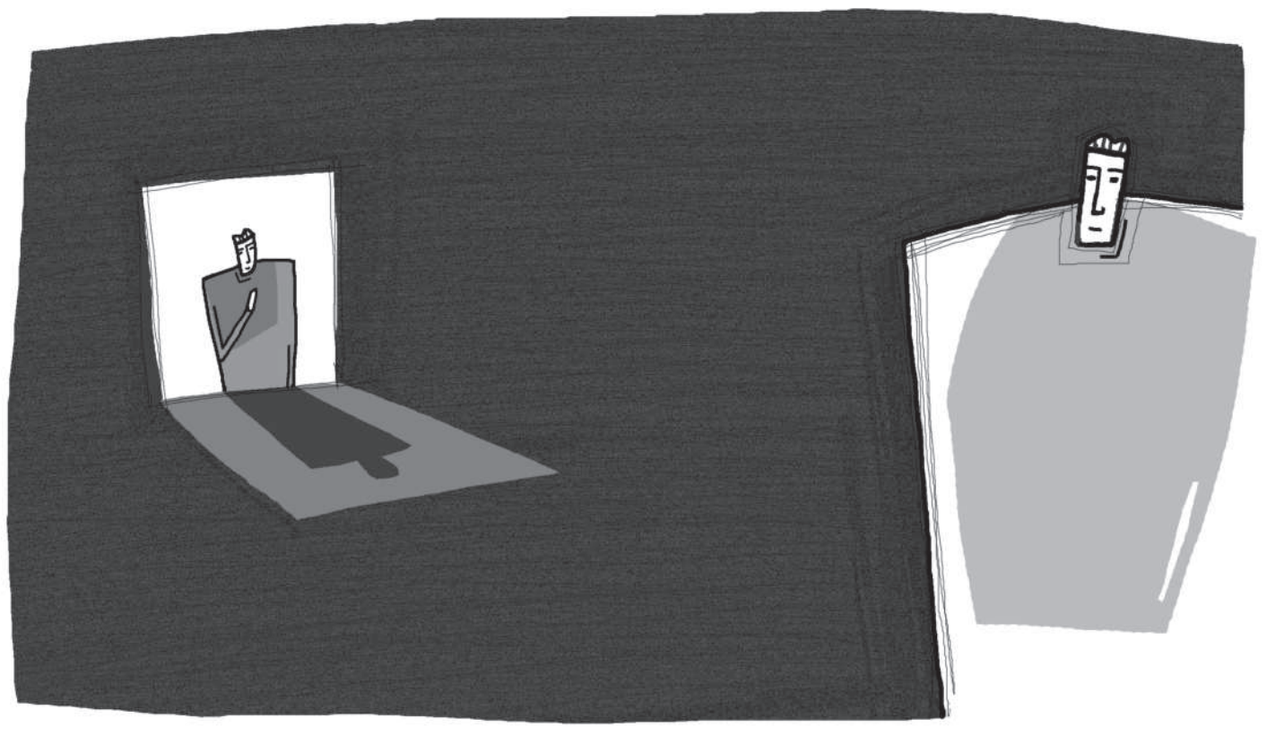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게 옛날에 이름이 있었습디다. 모두 지금은 새 이름을 붙여서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귀찮아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벗겨서 보이는데 엄청나요. 이거는 뭐, 거기에 안으로 들이 긁기만 하면 뭐 꼼짝없이 그냥 죽겠어요. "엄마의 마음에 달렸어. 이 약의 종류가, 어디든지 이 약이 있어. 그런데 이 산천초목에 그 약이 없을라고.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죽이든지 살리는 건 여기에 매였다고 맡겨 놔 버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가서, 그날 저녁에 불이 나가서 촛불 켜 놓고선 그냥 앉아서 밤을 새다시피 잠을 자려니까 의사 셋이, 하얗게 소복한 의사 셋이 들어오는데 한 분은 스님이고 한 분은 또 간호원이고 한 분은 그 기계 가방을 들었더랍니다. 들어와서 전부 이 가방 속을 탁 여는데 보니깐 전부 풀뿌리에 싹이 난 그거더랍니다. 그런데 한 가방인데 풀어 놓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전부 일어나더랍니다, 이렇게. 전부 살았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스님이 있다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들어가고 이 한 이파리만 나와도 되느니라."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이파리가 나와서 거기 전부 아픈 데 가서 붙더랍니다. 그러더니만 그 이파리가 붙는 게 아니라 그 이파리가 그저 붙어서 진을 묻히고 진을 묻히고 이럭하곤 돌아가더니만 가방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방 속이라고 그런다고 가방인 줄 알지 마세요. 전체 우주 삼라만상 한데 합쳐진 가방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하고 가더니 그 이튿날 아침부터 그게 꾸득꾸득하더니 그냥 씻은 듯 부신 듯 나았더란 얘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알려고 그러고 또는 종류를 쫓아다니며 끄달리고 이러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하나하나 듣고 남한테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내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내 마음 한 점이 이게 가방 하나라면 우주 전체 대천세계에 가방 하나라면, 그렇다면 끄달릴 거 하나도 없죠. 죽는다 하더라도 끄달릴 것 없고 산다 하더라도 끄달릴 게 없고 거기에 뭐가 끄달릴 게 있습니까. 종류에 끄달려, 이름이 끄달려? 만약에 생각으로 한생각이면 배가 부르고, 한생각이면 그 어디 아픈 게 낫고, 한생각이면 저기 가고, 한생각이면 여기 오고 이럴 정도라면 우리는 살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모르면 영원히 또 그렇게 이렇게 끄달릴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끄달리는 이 자체가 한 점의 마음에 달렸으니 천 가지 만 가지 나오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보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듣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활용하는 거 모두 일절 자기의 성품에 의해서 한 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자기가 그렇게 맡겨 놓는 반면에 거기에서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약이 돼서 자기에 부당한 게 오는 게 아니라, 다 바로 거기에 맞는 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보이는 약만 생각하고 보이는 이름만 찾고 보이는 데서 방황합니까.

물도 병 종류에 따라서 물이 따라 줍니다. 물이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종류에 따라서, 우리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물도 선약이 돼 줄 수가 있고 아주 또 그냥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서 참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고 모든 게 귀찮기만 하고 모든 게 종류도 많고 끄달리는 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사람 살아나가는 게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두 그 편편치가 못하고 귀찮았습니다. 지금은 모두 칫솔로 쓰시지마는 그때는 소금을 가지고 손으로 쓰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때에 모두 빗이나 뭐, 이런 것도 때로는 외출을 할 때 가지고 다니지만 나 같은 사람이야 그런 빗 같은 게 소용없지요. 그런데 인제 칫솔은 가지고 다녀야 할 텐데 칫솔도 다 소용없고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빨이 좀 텁텁할 때는 항상 또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천 바닥에 가서 그 개천 앙금이 요렇게 앉은 걸 가지고, 고 아주 가느다란 앙금 모래를 가지고선 항상 닦았습니다, 다니면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얻은 게 뭐냐 하면 '야, 여기에도 선약이 있고, 여기에도 독약이 있구나.' 만약에 위가 헐어서, 즉 먹지 못해서 마른 데는 바로 이 느끼가 같이 포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마음도 내 마음 가운데서 다스릴 줄 알아야

☞ 19면에서 계속

함돼서 한데 합쳐져서 이렇게 있으니 한 번 그걸로 이를 닦으면서 모래는 뱉고 물은 삼켜 봤습니다. 왜 그것도 삼켰냐 하면은 물이 출출 흘러 내려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라도 목을 축여야 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모든 게 나에게 어떠한 독약이라도 바로 내 생각에 의해서 그게 독이 빠질 수도 있고 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또 종류가 암모니아도 되고 모든 가스도 되고, 그 석유 기름이 모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이 진흙도 항생제의 역할도 하는데 모든 그 폐의 근원도 없앨 수 있는 그런 항생제 역할도 한다 이겁니다. 돌에도 이 생명이 있고 약이 되고 모두가 약이 아니 되는 게 없는데 왜 그 종류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 포천에 지금도 계시지만 아, 그 집의 영감님은 아, 벽에 그 저 뭡니까? 진흙, 그거를 만날 그냥 맛있게 먹었거든. 맛있게 먹은 게 먹은 게 아니에요. 폐가 너무 망가졌으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숯도. 숯은 왜? 이거는 숯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탄 거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탄 거기 때문에 끓는 물에다가 갖다가 넣어서 다시 그 물을 식혀서 먹으면 열이 내린다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물도, 말하자면 메뚜기나 메뚜기같이 생긴 오줌싸개나 이런 것도 다 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종류를 쫓아다니면서 이름 찾고 뭐 찾고 종류 찾고 이럴 게 없습니다. 한 점의 마음에는 우주 섭류의 그 근원이, 약뿐만 아니라 전체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게 방황하고 살고 고에서 휘달리고 앨 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고도. "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거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할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체험하고 진짜 우주의 모든 근본이 여기 한 점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다 내가 아쉬울 대로 꺼내 쓸 수 있으니 뭐가 급한 게 있고, 뭐가 겁나는 게 있고, 뭐가 걱정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 아님이 없으면서 항상 겸손하면서도 그렇게 그 도도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며느리 되고 싶어요

질문 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하면 시부모한테 효도하고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살림을 하다 보니 시부모의 생활 방식과 충돌을 하게 되고 마음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한마음 되어 잘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 살림을 이끌어 나가야 할는지요.

답변 여러분이 공부한다, 부처가 됐다 이러더라도 그 부처가 되기 이전에, 수억 겁을 거치면서 공부하면서 나올 때에 뭔 짓은 안 했겠습니까? 과거에 강도질을 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몰랐을 때 내 모습, 잘못했을 때 내 모습, 내가 알기 이전에 몰랐을 때 내 모습으로만 모두 본다면 밉고 곱고가 따로 없죠.

지금 내가 배우고 가는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항상 자식들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탈이 나는 겁니다.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자녀로서 한마음이 된다면 폐단이 올 일이 없습니다. 부모한테는 부모한테로 들어가서 부모가 돼 버리면, 그 기준에 선다면 폐단이 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서 항상 얕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넌 밥 빌어먹는다." 부모더러는 하는 말이 "당신네들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찌 한마음으로 이 우주 천하를 통일을 하겠습니까? 허허허, 한마음으로 말입니다.

모습은 제각기 다르지만, 차원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모든 그 마음들은 본래부터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물질에 끄달리고 먹고 사는 데 끄달리고 애착에 끄달리고 욕심에 끄달리고 모두 그러다 보니깐 잘못된 거지, 애초부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부처님도 자기가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굴러왔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얕은 것도 높고, 높은 것도 높고 평등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두 잘못되는 거를, 고통을 알아야 고통이 고통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춥고 떨릴 때 뜨거운 엽차를 한잔 마셔 보십시오. 춥고 떨릴 때 말입니다. 엽차를 마실 때에 뜨겁고 시원하고 그렇죠?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시원한 겁니다. 뜨거운 걸 모르면 시원한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고가 닥치고, 애고가 닥치고, 병고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걸 재료로 삼아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리듯 '나는 인제 죽었다.' 하고 신경질을 내고 온통 이 야단들을 치면 몸 상하고 집안 망하고, 식구들이 전부 제각기 헤어집니다, 마음들이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잘못됨으로써 식구가 다 망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병든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가난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름에 끄달리지 맙시다. 모두가 이름에 끄달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정말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허, 너도 예전에 저렇게 몰랐었지? 허허, 내 모습 같구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진정코 애닯고 애처롭고 그렇게 되지, '저걸 몰라서, 저거 저렇다.'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또. 여러분이 지혜가 풍부해야 조건 없는 자비도 나오지 지혜가 풍부치 못하면 조건 없는 자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놔두고 행해야지, 말로나 행동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넓어지려야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저 산천초목의 모든 푸르름도 가만히 보세요. 제 이파리가 져서 떨어지고 져서 떨어지는 것이 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망가뜨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것도 망가뜨린다고 할 수도 없죠.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물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마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마음 떠나서 계발할 수 없고 마음 떠나서는 원력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마음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계발이 될 수가 없고, 창조력을 이룰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금도 장농 안에 가만히 넣어 두고 있으면 늘지 못한다, 금이 말이에요. 그러니깐 장롱 속에서 금을 꺼내서 자꾸 굴리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 금이 많아져서 모두 나누어 주게끔 되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 한 점의 마음에는 우주 섭류의 그 근원이,
> 약뿐만 아니라 전체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왜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습니까.
> 그렇게 방황하고 고에서 휘달리고 앨 쓰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안에서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마음도 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다스려서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만이 정식으로 참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다. 모두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라고만 고집하면 아들 노릇은 어떡하며 친구 노릇은 어떡하며 남편 노릇은 어떡하느냐 이 소립니다.

그와 같이 이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보고 듣고 행하고, 모든 거를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을 그냥 마음 가운데다 척 놨을 때에 마음이 편안해야, 일하면서도 편안하고서서 가다가도 편안하고 앉아 있는데도 편안하고 똥을 눠도 편안하고 이래야 좌선입니다. 이게 좌선이자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활에서 고통이 오는 것을 그 고통만 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거를 안다면, 아까 뜨거운 것을 알아야 시원한 것을 안다 이랬죠. 그와 같이 그냥 시원하게 대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걸 모르니까 허우적거릴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를 알려 주기 위해서 관법을 정했는데, 그 관하는 거는 그냥 '아이, 주인공! 주인공이 잘해 주시오.' 하고 말로만 이럭하고는 거기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인간이 어디서 오고, 어떡해서 이렇게 끌려서 돌아가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운명 팔자가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안다면 대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는 것을 일러 줘도 대치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과 이 사람의 마음 근본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다' 이랬는데도 그 주인공을 믿고 놓을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그냥 '너 알아서, 너밖엔 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는데, '해 주시오' 해 놓고는 그냥 바깥으로 막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이 속에서도 의식들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 나뭇가지를 갖다 여러 개를 모아서 놓으면 부러뜨릴래야 부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거든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헤어지면 그냥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편안함이 내생에도 이어질까요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편한함이 내생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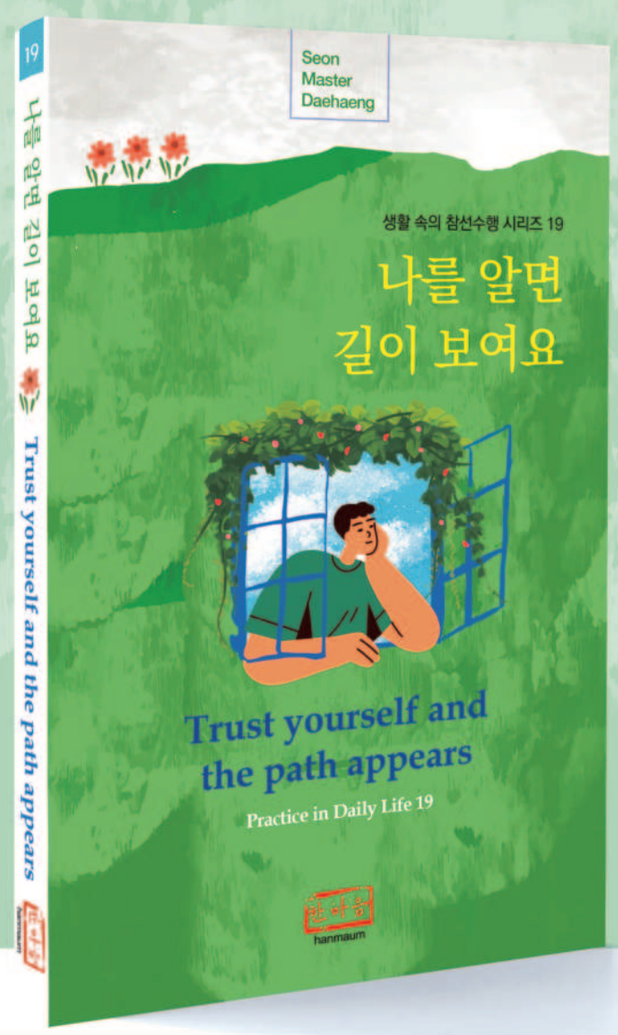
답변 오늘 만약에 남을 도와서 좋은 일을 하고 내 마음이 즐거웠다면 내일까지도 즐겁죠. 그런 인연을 맺었다면 더불어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 모두 빈손으로 돌봐 주게 되고, 없는 손이 와서 돌봐 주게 되고요. 또 없는 손이 있는 손으로 둘이 아니게 포함이 돼서 귀인이 돼 가지고 다 돌봐 주고, 가는 족족 이렇게 돌봐 주게 되죠.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모두 모르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체가 다 음파가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끔 되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러고도 내 마음의 다스림이 이 육체 안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에게 통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통하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인의롭고, 자유스럽고, 슬기롭게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병고가, 죽을 병고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대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⑮ 아나빠나 삿띠 1

‘숨을 본다’는 것은?

숨을 본다는 것은? 현실로 돌아오는 작업이다. 우리는 몸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평생을 개념 속에 산다. 병이라도 들어야 그제야 몸이 있는 줄 알고 주의를 기울인다. ‘숨쉬기’는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실하게 운영된다. 하지만 우리는 숨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 왔고 또 살고 있다. 숨 관찰은 몸 관찰의 시작이다. 개념에서 벗어나 ‘법(法: 담마)’을 자각하는 시작이다. ‘법’이란 붓다의 가르침·진리·실상(實相: 만물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상(또는 실재實在)으로서의 법’을 말한다. 개념(빤야띠)과 실재(빠라마타)의 구분은 무아(無我)라는 진리를 터득해 가는 데 있어 기본이자 필수이다.

벌거벗은 숨, 체험하기

수행 초보자에게 호흡을 보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평생을 개념(나와 너, 사회와 세상, 가족과 직장, 실패와 성공 등)으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실재(호흡)를 보라고 하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헤맨다. 그래서 ‘개념’을 ‘개념’으로 타파하는, ‘무(無)의 개념’을 ‘공(空)의 개념’으로 타파하는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해야 한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 ‘의식’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야, 그 분리가 일어난 ‘고요한 자리’에서 관조(觀照: 통찰지로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봄)가 가능하다. 스스로를 ‘덩어리’로 의식하고 살았기에, 덩어리인 채로의 ‘의식의 분리’가 우선 필요하다. 에고(자아)를 동반하는 의식은 ‘식(識)’, 에고로부터 분리된 아는 마음을 ‘지(智)’라고 우선 지칭하고 이 글을 전개한다. 세분화된 수준과 성품에 따른 다양한 전문 용어들이 있지만, ‘무명의 마음(식)’과 ‘반야의 마음(지)’, 먼저 이 두 가지만 구분하여 언급한다.

수행 초보였을 때 헤매며 고군분투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선은 덩어리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가 숨 쉰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나’라는 주체와 ‘호흡’이라는 객체로 있고, 그것을 ‘이미지[상相]’로 인식하며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이미지로서의 내 몸체와 호흡 기관, 그리고 투명한 숨이 들락날락하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한동안의 노력과 답답함 속에 급기야 “호흡을 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라고 법사님께 호소했다. 지나고 보니 이것 자체가 큰 발전이었다. ‘상’으로서, 즉 ‘개념’으로서 호흡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실재’로서의 호흡을 볼 준비가 된 것이다. 먼저 ‘호흡’이라는 ‘용어’부터 버릴 필요가 있다.



몸이라는 껍데기는 버리고, 공기의 흐름을 본다. ©강소연

‘개념’을 넘어 ‘실재’로

‘들락날락하는 공기의 흐름’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께서도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경(아나빠나 삿띠 경: Anāpānasati sutta)”이라고 이름 붙이셨다. [‘아나빠나’란 ‘들임(아나 āna: 받아들임)과 버림(빠나 āpāna: 내보냄)’이란 뜻이다.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이다. ‘호흡’이라는 개념적 용어 자체가 수행의 큰 방해가 되기에, 공기의 ‘들어옴과 나감’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무상하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좋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눈으로 “나는 호흡이니 숨이니 그런 단어 몰라. 태어나 보니 서걱서걱 몸뚱이가 코를 통해 공기를 풀무질하네”라며, 숨을 생전 처음 보듯이 보자. ‘실재하는 숨의 증거’를 찾자! 오염된 인식의 작용인 ‘내가 숨을 본다’고 착각하고 수행하면 백전백패. 이미지(개념)로 호흡을 본다는 착각을 넘어서면, 소리로 숨을 인식하는 단계가 온다. 거칠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소리를 한동안 알아차리다 보면, 의식에서 놓여난 무의식의 호흡(자연 호흡)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의 영역인 폐의 자동 펌프질이 신기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동물이 잠잘 때 서걱서걱 풀무질하듯 공기가 빨려 들어갔다 내뿜어지기를 반복하고, 이에 따라 가죽 부대는 팽창했다 꺼지기를 연이어 반복한다.

공기가 코·기관지·횡경막·아랫배 등을 순차적으로 통과할 때, (보통 한쪽 콧구멍으로만 숨이 통과하는 듯 느껴지는데) 어깨부터 부풀어 올랐다가 그 부풂으로 인한 단단한 느낌이 흉부를 경유해 아랫배를 거치며 밀물과 썰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들어오는 공기는 서늘하고 나가는 공기는 따듯하다. 그저 관조할 뿐, 관여할 수 없다. 공기의 흐름(들숨과 날숨)과 몸은 서로 기대어 존재하고, 그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둘 다 있지만 둘 다 없다. 둘이 만났을 때 일어나고 꺼지는 느낌의 생멸은 무상하다. 그리고 나는 없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⑮ 약국 치약, 무엇이 다른가요?

구강 내 염증 완화 등 치료에 쓰여

“시계약 좀 주이소.”

“(멈칫) 시계약이요?”

“시계가 멈추면 넣는 게 시계약 아인교? 밧데리! 밧데리!”

“아! 그건 저기 옆 시계방이나 편의점에 가보시면 됩니다.”

“약국에 약이라고 다 있는 건 아니구먼.”

“구두약 좀 줘 보이소.”

“….”

필자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찾는 약이 약국에 비치돼 있지 않아 당황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약국에 시계약과 구두약은 없다. 하지만 치약은 있다. 치약은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만 판매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약국에서만 취급하는 일반의약품 치약도 엄연히 존재한다. 오늘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의약품 치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일반의약품 치약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한 치약과는 조금 다르다. 약국 판매 치약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구강 내 염증 완화나 출혈, 통증 개선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충치 예방이나 구강 청결 유지 등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평상시 구강 관리와 청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치약을 쓰면 되고,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등 문제가 있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구강 관리나 치주 질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약국을 방문해 증상에 맞은 의약품 치약을 추천받는 것이 좋다.

물론, 약국에서 판매하는 치약이 모두 의약품은 아니다. 약국에도 의약품 치약과 의약외품 치약이 모두 있으니, 어떤 것을 사용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는 약사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의약품 치약으로는 동화제약의 ‘잇치 페이스트’가 있다. 이 제품의 유효 성분은 몰약, 라타니아, 카모밀레 같은 생약 추출물이다. 몰약은 잇몸의 통증과 부종을 억제하고 항균 효과가 있으며, 라타니아는 지혈 및 잇몸 강화에 도움을 준다. 카모밀레는 항염증 및 진정 작용에 효과가 있다.

잇치의 유효 성분들은 구강 병원균과 충치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음이 임상적으로 확인돼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잇몸이 붓거나 충혈되고 피가 나거나 고름, 구취가 있다면 이러한 의약품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잇치 페이스트’는 기본인 파란색 제품과 편백향 피톤치드가 첨가된 초록색 제품, 프로폴리스가 추가돼 항균 효과가 강화된 노란색 제품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광동제약의 ‘치올 페이스트’라는 의약품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이 제품에는 히노키티올이라는 성분이 있어 치은염, 구내염, 설염, 입술 염증, 치조농루 등 다양한 구강 염증에

구강 관리 청결은 일반 치약 사용

치약 선택 어려울 때 약사와 상담

사용된다. 히노키티올은 편백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천연물로, 항균·항진균·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작용을 하여 치은염, 구내염, 치주염 등 다양한 구강 내 염증에 효과적이다.

‘치올 페이스트’는 염증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 치약 대신 사용하거나, 일반 치약과 병행해 사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제품들은 임상적으로 효능이 검증된 의약품이지만, 장기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약사나 치과의사와의 상담으로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어린이나 영유아 전용 치약도 약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와 유아의 치약을 고를 때는 나이 및 양치 습관을 고려해 적당한 불소 함량을 가진 치약을 선택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나 대한소아치과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6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불소 사용 금지이며, 치약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수유 후 구강 청결 티슈나 구강용 면봉 등으로 깨끗이 닦아 주는 정도의 관리로 충분하다.

6개월부터 약 만 2세까지는 불소가 없거나 500ppm 이하인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양치할 때는 칫솔 위에 쌀알 크기 정도만 치약을 짜서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500~1,000ppm 정도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고, 콩알 크기 정도로 치약을 짜서 양치하는 것이 좋다. 이 나이대 아이들도 스스로 입을 헹구고 치약을 뱉어 내는 것이 익숙지 않으므로 치약의 양이 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만 6세 이상부터는 1,000~1,500ppm 정도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만큼 치약을 짜서 사용하되,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치 후에는 꼭 물로 헹구도록 교육해야 한다.

부처님의 특별한 신체를 묘사한 글에 따르면, 부처님은 치아가 고르고 희고 빽빽하며 보통 인간보다 많은 40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는 말씀의 힘과 설법의 깊이를 상징하기 위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많은 치아를 희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님도 남들보다 치아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셨음이 틀림없다.

스리랑카의 불치사는 부처님의 송곳니를 모신 것으로 유명한데, 이 치아 사리는 스리랑카 왕권의 상징이 되었고, 불법을 수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생각해 보라. 이 송곳니에 충치가 생겨 검게 패여 있었다면, 왕권의 상징이 충치균에 좀먹히고 있었다면, 부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았을까?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여행서 찾지 못한 삶 목표
부처님 가르침서 찾아보길

여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어느 날, 제주도에서 한 달을 지내다 막 서울에 왔다는 프랑스인 여성이 템플스테이를 하러 왔다.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들어오는 그에게 나는 먼저 방을 안내하고, 사찰복으로 갈아입게 한 후 템플스테이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해 주었다.

아직 한 번도 혼자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했기에 혼자 배낭여행을 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볼 때마다 언젠가 나도 세계를 혼자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이들은 과연 이 여행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이런 궁금함을 뒤로 한 채 그 외국인 참가자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저녁 일정 중 선택사항인 108배를 할지를 물으니 선뜻 하겠다고 했다. 호기심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오히려 108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여성도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니 이를 주의 깊게 보고 이내 따라 하기에, 108배를 경험하고 나면 뭔가 해냈다는 또 다른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매일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여성은 108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 보니, 그녀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접고 멕시코에 살고 있으며 1년에 6개월 동안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한국에 남편과 함께 왔는데 남편이 손목을 심하게 다쳐서 치료차 먼저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질문 하나를 던졌다. 왜 그리 오랫동안 집을 떠나 여행하느냐고. 그녀의 답은 인생의 목표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었다. 선재 동자의 구도 여행인가? 그래서 다시 질문하였다. 그 목표를 찾았느냐고.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전날 이태원에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많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대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채식가인데 한국에서는 채식 식당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나는 절에서 조용히 명상도 하고 채식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 절에 잘 오셨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 와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된 것도 인연이니, 여행에서 찾지 못한 삶의 목표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러면 분명 내 안에서 그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먼저 매일 아침 절도 하고 명상도 해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템플스테이 참가하기를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꼭 다시 한 번 한국에 오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공양간으로 이동하자 채식으로만 이뤄진 사찰음식을 보고는 매우 만족해했다. 나는 그녀에게 저녁예불 참석을 독려하고 절에 머무는 동안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절을 나서며 일주문 앞에서 부처님 전에 감사의 절을 올렸다.



조진화 국제포교사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⑱ 부부학교 ②

배우자에게 감사·선업 일기 써 보라

전생의 원수가 만나 부부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부살이가 고달프다는 뜻이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트랙을 굳이 한 다리를 같이 묶은 채 이인삼각으로 달린다. 매 순간 서로 합의하고 경청하고 보조를 맞추며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인삼각의 고행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강조한다. 모든 행위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고락의 과보가 따른다고 말한다. 전생의 원수가 만나 부부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원한을 푸는 일이다. 더 행복하기 위해, 더 성장하기 위해 고르고 고른 배우자가 사사건건 내 앞길을 막는 원수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한을 풀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이 앞에 있는 웅덩이를 다 채우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흘러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웅덩이라는 고난은 실은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더 앞길로 나아가기 위해 나의 한계를 알려 주고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이 괴롭다고 도망쳐 봤자,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야 한다. 이러한 부부생활의 숨은 이치를 깨닫는 날 전생의 원수는 현생의 귀인이 되리라.

부부학교에서는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 만트라가 있다. ①"지금 이 일이 과연 죽고 사는 문제인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외워야 하는 만트라다. 대부분의 갈등은 사소한 감정싸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②"허공이 허공을 나는 새와 허공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난 감정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두 번째 만트라다. ③"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변화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내가 바뀌면 상대는 저절로 바뀌는 법이다. 최소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터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모두 당사자에게 있다." 도저히 답이 없다고 느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세 번째 만트라다.

많은 갈등 사소한 감정싸움서 시작
감정과 나 자신 동일시하지 않아야
내가 바뀌면 상대는 저절로 달라져

지금 로또 100억원에 당첨돼 은행에 가는 사람은 뒤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 대도, 옆 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어도 얼굴에 온통 함박웃음이 가득할 것이다. 평소 '그러면 안 된다'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진 사람도 버럭버럭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대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황을 수용할 것이다. 100억원이라는 긍정 자원이 주는 힘이다.

부부학교 수료생들은 반드시 딴 주머니 하나씩은 차야 한다. 하루에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 다행스러웠던 일을 적는 '감사일기'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 따뜻한 시선, 그리고 친절과 양보, 헤아림을 베풀고 적는 '선업일기'가 그것이다. 보물찾기처럼 날마다 내가 받은 고마움을 발견하고, 또 직접 선행을 실천하며 예금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 통장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 주는 수호신이며, 또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만능통장이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백지수표다.

배우자에게 감사일기와 선업일기를 써 보라. 다 너 때문이라는 '남탓지옥'의 불길 속에서, 화중련(火中蓮) 불길에도 젖지 않는 한 송이 연꽃을 피우리라.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조계종 중앙종회에 바란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새로운 종책모임 '정법회'가 8월 4일 출범했다. 정법회는 종단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특히 중앙종회가 본래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반성과 문제의식에 공감한 14명의 스님이 뜻을 모아 결성한 종책모임이다.

정법회는 4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종회가 종단의 미래보다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또 "종헌·종법이 일부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와 종헌·종법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종책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선언은 종회의원 스님들이 정치적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종책과 제도를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 중앙종회 본연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의 입법기구이자 대의기구다. 중앙종회가 펴낸 〈종헌의 이해〉는 종단이 종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집행부의 전제적 종권을 제한함으로써 종단의 민주적 운영에 적합하고 △종도주권 원리와 대의제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종도가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뜻을 대변하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방향을 설정하는 책무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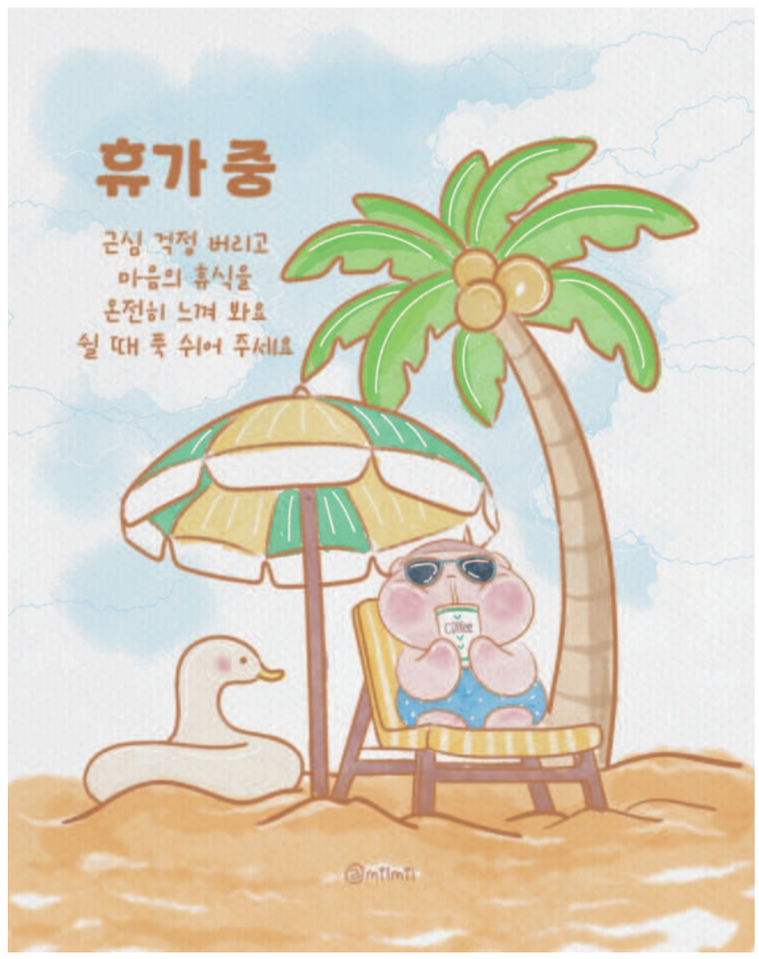
그러나 종헌·종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안에 따라 견해를 바꾸고 시류에 따르는 태도로는 건강한 입법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종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선 몇몇 종회의원의 노력만으론 역부족이다. 종회 모든 구성원이 입법기구로서 종헌·종법을 면밀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 활동에 임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앙종회가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종단 운영의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관계와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정책을 고민하는 종회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불교계가 간절히 바라는 변화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일타강사
BTN 불교TV에 다 있다!
모든 번뇌를 날려버릴 족집게 법문

한국학 | 문광스님
신 행 | 광우스님
계 율 | 법장스님
불교사 | 자현스님

문광스님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소중한·나·무한행복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투게더 本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륜성왕을 기다리며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불사리(佛舍利) 관련 기사가 자주 보인다. 태조의 경우 통도사에 모셨다가 왜구로 인해 송림사에 모셨던 부처님의 두골사리(頭骨舍利)를 흥천사에 사리전을 새로 짓고 봉안하였으며, 정릉사 탑 앞에서 법회를 열었을 때 사리 4매가 분신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세종 역시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흥천사 사리전의 유지와 보수에 많은 비용을 투여하고 있다.

이 같은 기록들은 왕조 창업의 정당성 혹은 왕위의 정당성을 논할 때 흔히 나타나는 예들이다. 수 문제는 강남과 강북을 통일한 후 불사리를 얻었는데 1000여 과로 분신하였기에 전국에 인수사리탑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법회를 지역마다 열기도 했다. 이때 불사리의 출현과 분신 그리고 불사리탑의 건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불사리 출현에 의해 증명한다는 의미이다. 곧 왕조창업의 불교적 정당화이다.

이것은 불교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전륜성왕을 표방하고, 아소카 왕을 역사적인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동아시아의 왕들도 불교가 전해진 뒤 널리 퍼지자,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건국하고 다스리는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정당성을 보여주는 증명의 하나가 바로 불사리의 출현과 분신 그리고 사리탑의 건립이다.

이상적인 군주 모델 '아쇼카 왕'
불사리 출현 기록 왕일수록 업적↑
스스로 반성하는 리더를 바란다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스리랑카의 불치사 사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리랑카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전해진 뒤 그 사리를 봉안한 절을 지었는데 곧 불치사이다. 그런데 이 불치사리는 신비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왕의 통치가 불교의 가르침과 사리에 어긋나게 되면 그 모습을 감추어 보이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것이 동아시아에도 전해졌고, 이후 불사리가 출현한다는 사실 자체가 왕의 정당한 통치를 증명하는 신표로 여겨졌던 것이다.

조선전기에 불사리에 가장 열심이었던 왕이 바로 태조와 세종 그리고 세조이다. 세종과 세조로 이어지는 '월인천강지곡'은 부처님의 말씀사리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조가 금강산에서 불사리를 친견했을 때 불사리의 분신이 있었고, 결국 7000여 과를 얻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저 신기한 일 혹은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도자가 자신의 리더십과 그 리더십에 따른 정책이 정당한가를 고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스스로 앞장서고 남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옛 임금들이 무지해서 불사리의 출현과 분신의 신비를 빌려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불사리 출현과 분신의 기록을 남긴 왕들이 정무에 더 열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겠는가. 스스로를 고민하고 반성하며 고쳐나가는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 시대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감정 흐름을 알아차려라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최근 폭염만큼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화에 못 이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쏘고, 내기 바둑에서 칼을 휘두르는 일들. 이런 사건들은 개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화가 날 때 사람들은 제각기 다르게 반응한다. 어떤 이는 화내는 자신을 싫어하며 억압하거나 참는다. 그 결과 우울해지거나 몸이 아파진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서툰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거나 신체적인 증상을 겪는 편이다.

어릴 적부터 '울면 안 된다' '화를 내면 나쁜 아이야'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감정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나쁜 행동'이라 여긴다. 그래서 슬프거나 화가 나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식의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성장기, 안전이 훼손되거나 방임 당하는 경우,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전에도 분노는 억압되었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인 반응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것은 행동화(Acting out)라는 방어기제다. 불편한 감정이나 갈등을 직면하기보다 곧바로 행동으로 표출하며 회피하는 것이다. 이때 그 행동은 종종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자기 파괴적일 수 있다. 행동화는 일시적으로 감정을 해소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인관계가 악화되기 쉽고, 감정표현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감정 의한 행동은 습관 되고
습관은 결국 성격으로 굳어져
감정과 습관, 관찰하고 기록을

이런 행동화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증거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우쭐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동안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배울 기회가 부족했구나'하고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의식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 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 '이 불편함은 몸 어디에서 감지되나'라고 몸에 주의를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그 상황을 글로 쓰거나, 심리상담을 받거나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화를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연습도 있다.

알아차림이라는 빛을 놓치면, 부정적인 감정에 따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다. 무의식적 반응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경향성에 따라 뇌를 자극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하여 고통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 결과,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상태나 반응과는 동떨어진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과거의 감정, 습관, 경험 등이 현재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조건을 '삼스카라(Saṃskāra, 行蘊)'라고 불렀다. '삼스카라'는 과거 경험이 훈습되어 무의식 속에 잠재된 것으로, 유사한 자극을 받을 때 다시 활성화되어 현재의 인식과 반응에 개입한다.

명상은 삼스카라를 의식의 관찰 아래 두고 점차 해체해 가는 수행이다. 특히 마음챙김(sati, 念) 기반 심리치료에서는 습관적인 사고와 감정의 패턴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동적인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해보라. 관찰의 힘은 자동화된 마음 회로를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내어, 점차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社 說

남북 평화 화합 기원 법회에 거는 기대

조계종이 오는 8월 14일 서울 봉은사에서 남북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주관하는 '8·15 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 법회'는 민족의 분단 현실을 직시하고, 갈등과 적대를 넘어 평화로 나아가자는 염원을 모으는 자리다. 이날 발표되는 '남북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 촉구문'은 그 의지를 담아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남북 불교계는 지난 2015년 이전까지 매년 광복절에 8·15 동시 법회를 봉행하며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발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이러한 전통이 멈춰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립과 단절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신은 깊어지고, 평화의 길을 멀어진다. 그렇기에 이번 법회가 끊어진 남북 대화를 잇는 상징적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복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신계사 남북 합동법회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동영 장관 역시 불교계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복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북이 분단과 적대를 끝내고 온전한 평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을 수 있다. 시민들의 평화 의식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이번 법회가 한반도 평화의 길을 환히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결정 환영한다

3월 25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의성 고운사는 천년 문화유산과 사찰림을 잃었다. 산불은 전각 21동을 전소시켰고 사찰림 전체 면적 248.87ha 중 약 97.61%인 242.92ha가 소실됐다.

이 같은 큰 피해를 입은 고운사가 사찰림의 복원 자연복원을 결정했다. 광범위한 사찰림의 자연복원은 첫 사례로,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산림청을 중심으로 이뤄진 산불 피해림 복원은 피해 나무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심는 인공복원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심어지는 나무들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였고, 기존 숲을 배어 내는 등 추가 피해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대단했다. 실제 고운사가 불교환경연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등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운사 사찰림의 자연복원 가능성이 확인됐다. 생존한 활엽수 대부분은 빠르게 새싹을 틔웠으며, 다양한 야생조류들도 숲으로 돌아왔다.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의 힘에 맡기면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간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현재 조건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숲을 재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이 선택하는 새로운 숲의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자연이 키워낼 고운사의 새로운 사찰림이 사뭇 기대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8월 13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8월 1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8월 1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영산불교 현지사

제적 공고

영산불교 현지사에서 수행하던 정**(법명 동일스님)에 대하여, 본 교단 장로회의는 교헌 및 교법에 의거하여 제적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로써 정**는 더 이상 영산불교 현지사 소속 승려가 아님을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정**는 2025년 7월 31일부로 현지사를 떠났음을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8월 13일

영산불교 현지사 교정원장 일도 합장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2025 신상출시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 특징 1 **뛰어난 통기성의 메쉬 소재** – 발이 숨 쉬는 듯한 쾌적함
- 특징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
- 특징 3 **자연 통풍 구조** –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설계
- 특징 4 **세련된 디자인** – 그레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솔의 조화



특별혜택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80,000원 ⇒ **특별 할인가 65,000원**

어싱 효과를 더욱 높여줄 '어싱 양말'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사이즈 : 225mm~280mm, 색상 : 미들 그레이)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당신의 발을 해방하세요.

'메쉬 어싱 수행화'는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메쉬 소재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언제나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땅과 나를 연결하는 '어싱(Earthing)' 기술로, 걷는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1 벨크로 타입으로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주는 3mm의 탄력있는 밑창으로 발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3 어싱 신발에는 가죽 인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발 감각에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한 것이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사계절용(생활방수) ※ 사은품 : 어싱 양말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맷돌의 미학, 커피의 철학

밀스톤 맷돌 커피 그라인더
Millstone

불교박람회를 핫하게 만든 맷돌커피

수동 압착식 원두 분쇄, 고흥석·오석이 빚어낸 원형의 미학과 기능성



정가 ~~1,800,000~~ ⇒ 할인가 1,400,000
특판 보급가
정가 ~~2,000,000~~ ⇒ 할인가 1,600,000

- 고흥석 원석 : 약 13.1kg
- 오 석 원석 : 약 14.1kg
- 크기 : 헤드 지름 16cm×받침 지름 26cm×높이 27cm
- 수동 회전 압착 분쇄 방식
- 반영구적 내구성 – 최고급 수공예품
- 국내 기술 특허 및 국제 기술 특허 등록



핸드드립 애호가와 홈카페 유저를 위한
'한 잔의 철학'을 담은 맷돌 그라인더

패키지 구성품
맷돌 본체, 커피 수납용 컵, 전용 브러시, 맷돌 손잡이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